



Korea Desk 021-2078-5877

http://www.kiwoom.co.id



01511110101 पार्वेशा हरा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7ト 記れ るけいてト











CAN THE QR CODE TO FOLLOW US ON SOCIAL MEDIA AND DOWNLOAD OUR KIWOOM HERO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 및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여유로운 실내공간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 가격 및 기타 상세내용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참조





Call Center: 0 800 1 878 878 (Toll free 24 hours) www.hyundai.com



한인뉴스 지령 300호를 축하합니다





hotelfacilities



SER NI

Coffee Shop



43

BUSINESS



Ballroom II

POOL

Pool Bar



Meeting Room



SWIMMING

Fitness Club



Driving Range

AIRLANGGA

Restaurant



Garden



Bunker Cafe





Money Changer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 info@palace.co.id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Benefit

혜택

고주몽을포함한자바팔레스호텔내식음료할인

- 15% 할인주류포함
- 자바팔레스호텔스파
- 마사지 20% 할인
- 자바팔레스호텔골프연습장
- 일반가격에서 30% 할인
- 자바팔레스호텔헬스장, 사우나, 스파시설
 - 1년간무료이용

자바팔레스호텔객실

- 무료숙박권 3 매 (주말, Superior Room, 조식 2 인포함)
- 숙박 50%할인권 2매 (주말, All
- Room type) • 숙박 20%할인권6매 (주중포함,

All Room type) Seruni Coffee Shop

• 생일당일무료생일케익제공 (사전예약필요)

Annual Fee

0001

한인뉴스 지령 300호를 축하합니다

1991



교민 여러분 덕에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중 인도네시아 임직원 일동







- Air Freight
- Customs Clearance
- Tri Angle Service
- Cargo Insurance
- Door to Door Service
- **Logistic Consulting**

인도네시아 취항 17개 항공사 및 주요 운송지역의 450여 파트너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며 합리적인 운송을 약속 드립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운송서비스, 프라임 인도네시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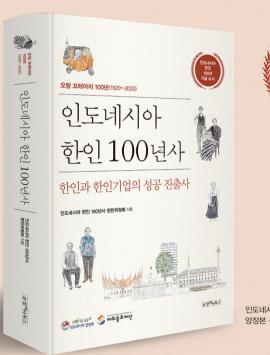
PT. PRIME FREIGHT INDONESIA

PRIME JAKARTA 14F. Gedung Surveyor Indonesia, Jl. Jendral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Indonesia TEL: +62 21 526 5515 & +62 21 526 5266

PRIME KOREA ㈜ 프라임 운송 Prime Freight Service Co.,Ltd.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11층 TEL: +82 2 338 9425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 역사를 집대성한 책

★인도네시아 한인과 한인기업의 역사와 성공 이야기★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 지음 양장본 · 판형 163×235 쪽수 512

적도에서 펼쳐진 한인들의 치열한 삶과 도전의 역사! 열정 그리고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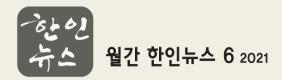


★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개척 도전사와 '산업별 한인기업 50년사(史)' 총망라 ★ '오랑 꼬레아'가 인도네시아 땅에 새긴 특별한 삶의 현장 보고서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개인회원께는 〈인도네시아한인100년사〉 책자 요청시 무료로 드립니다. 연락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O812 1960 308 (지역에 따라 배송비 개인부담)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 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021-521-2515

contents

2021. 6. 통권 300호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I.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10

한인뉴스 지령 300호를 축하합니다

12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 한국전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본 인도네시아인 좋군기자 목타르 루비스

14

이코노미 인사이트 -미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한인뉴스 지령 300호

- 18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42
 - 반란의시대
- 21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정창훈〉
- 24 월간 뉴스브리핑 〈데일리인도네시아〉
- 28 두 개의 시선 하빕, 카이, 우스탓, 하지 〈헬른〉
- 30 나바수 〈민선회〉
- 32 자카르타 맛집탐방 SUDESTADA 〈주윤지〉
- 36 편집장의 세계 홍석영 편
- 40 책이답하다1 아세안의 시간 〈조연숙〉

- 42 여행은 언제나 옳다 사색의 토바 〈김영국〉
- 46 마따람의 아이르랗가 왕과 서사시 아르주나위와하 〈유은규〉
- 49 신간안내 '라라 좋그랑'
- 50 창조적 긴장감의 공간 파타힐라 광장 〈박준영〉
- 54 행복에세이 '발리' 에서 한 달 살기 〈강희즛〉
-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297) 〈이승민〉
- 58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세요 〈최재원〉
- 62 〈서유견문〉, '서양'을 번역해 '근대'와 소통하다 〈서명일〉
- 66 생활정보

인도네시아 한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인뉴스지령 300호를 축하합니다.



₺ : 한결같은 마음으로

℃ : 인도네시아 한인들에게

☆ : 뉴스를 전달하는 사명으로

▲ : 스물다섯 해를 보냈습니다.



10 | 한인뉴스 2021년 6월호





한국전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본 인도네시아인 종군기자 목타르 루비스



논설위원 신성철

우리는 70년이 지난 6 · 25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도네시아인은 한국전쟁을 어떻게 보았을까? 6 · 25전쟁의 한복판에 있던 한국인들은 전쟁이 난 이유를 알았을까?

인도네시아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소설가인 목 타르 루비스(Mochtar Lubis 1922~2004)는 1950년 당시 스물여덟 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전 쟁 종군기자로 참전하며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시작했다. 목타르 루비스는 인천상륙작전 직후부 터 9월 28일 서울 수복에 이어, 10월 초 의정부 탈환작전 등 참혹한 전쟁터를 가감없이 기록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린 한국인들의 애환을 평화 저널리즘과 인류애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에 소상히 전했다.

목타르 루비스는 한국전쟁이 계속되던 1951년 9월에 '한국전 종군기' (Catatan Perang Korea)'를 인도네시아어로 출판해 인도네시아 인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렸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한국전 종군기' 출판 동기와 관련해, 목타르 루비스는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온통 미국과한국군의 승전 소식이었다. 한국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보도되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정작 한국인들에 대한이야기는 너무 적었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감정과고통 그리고 바람에 관한 기록들이 너무 없었다"라고 밝혔다.

목타르 루비스는 한국전쟁이 남과 북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밖의 강대국들의다툼에서 시작됐다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남과 북을 갈라놓은 38선의 존재조차 잘 몰랐고, 전쟁이 발발하자 영문도 모른 채 처절한 피난길을 헤매며 온갖 고통과 희생의 전쟁터에 내몰려야만했다고 기록했다.

목타르 루비스의 '한국전 종군기' (어문학사, 2017)를 번역한 전태현 한국외대 교수는 "열대의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방인의 시각에서 한 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겪고 느낀점들을 탁월한 문학적 사유를 곁들여 담아낸 수기"라고 촌평했다.

목타르 루비스는 '한국전 종군기'를 통해 인도 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인의 처절한 절규와 고통에 공감하고 전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랐다. 또 인도네시아인들이 당시 한반도 현실에 다소라도 관심을 기울여 봄으로써 한 국가의 지도자가 적대 관계에 있는 강대국들의 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파멸의 길에 이르는지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한국전쟁을 한반도의 재앙이라고 부른 목타르 루비스는 기관총 탄알이 복부를 관통한 여성을 목격한 후 이렇게 묘사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마지막 단말마의 비명이 빠져나왔다. 피비린내와 고름투성이 상처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인간 은 이와 같은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면 더 험악해 지거나 더 숙연해지게 마련이다. 내 머리속에 질 문 하나가 떠올랐다. 이 모두가 도대체 무슨 소용 이란 말인가? 무슨 소용? 인간성의 말살이었다." 라고 썼다.

당시 한국인이 느낀 '혼돈'에 대해, 목타르 루 비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한국의 이승만 이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썩은 것은 정부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승만이 파시스트라 고 했다. 파시스트는 그가 아니라 경찰이라고 했 다. 남한 사람이 잔인하다고 했다. 아니 잔인한 건 북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미국의 허수아 비라고 했다. 아니 이승만이야말로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미국은 한국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며, 단지 대한민국을 방어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아니 미국이 한국을 방어 하는 이유는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라고 했다. 소련이 북한군의 기동을 지휘했 다고 했다. 한국인들이 북한군의 진입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했다. 아니 북한군을 증오한다고 했 다. 한국인은 미군을 좋아한다고 했다. 아니 미군 을 싫어한다고 했다. 남한은 정말 잔인하다고 했 다. 남한은 민주국가라고 했다."

'인도네시아의 행동하는 양심'이라 불린 목타 르 루비스는 인도네시아 작가이자 언론자유를 위 해 싸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언론인이다. 목타 르 루비스는 1922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유명 문 필가를 다수 배출한 수마트라섬 서부 도시 빠당 (Padang)에서 태어났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유 력한 일간지 <인도네시아 라야>의 발행인 겸 주 필로 활약했으며, 현 국영 통신사인 안타라를 설 립하는데 기여했다. '아시아신문재단'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아시아신문재단 및 국제신문협회 관 계로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다.

목타르 루비스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당시 유력 신문이었던 〈인도네시아 라야〉 폐간과 그의 수감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정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독재를 맹렬히 비판 한 혐의로 1956년 12월부터 투옥과 연금 생활을 10년 가까이한다. 이후 수하르토 정권은 1968년 <인도네시아 라야>를 복간시켰지만 1974년 1월 말라리(Malari) 사건 보도를 이유로 6년만에 다 시 폐간시키고 1975년 2월에 그를 수감했다. 말 라리 사건은 1974년 1월 15일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가 자카르타를 국빈 방문하는 시점에 대 학생들이 주도한 반일 시위다.

한국전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인들의 고통이 목타 르 루비스의 기록을 통해 새롭게 다가온다. 국제정 치학적 소견과 남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목타르 루 비스의 묘사는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이 지난 오 늘에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저자 목타르 루비 스의 '한국전 종 군기' 표지 [오보 르 출판사]



목타르 루비스 [위 키피디어]



'미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투자·금융사기 25時

글: 황준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부장)

학교 새내기 시절, 친구의 아버님이 갑작 스레 돌아가셔서 친구 몇 명과 울산으로 조문을 간적이 있다. (이제는 어느정도 익숙해졌 으나) 당시엔 친구의 부친상이 처음인지라 부고 를 듣자마자 서둘러 서울을 출발, 늦은 밤 장례식 장에 도착하여 친구들과 같이 밤새 빈소를 지키고 다음날 장지까기 함께 했었다. 장례를 치른 후 고 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잠시 들른 고 속도로 휴게소에서 중년의 남자 두 서너 명이 정 차한 버스에 올라타고는 이름모를 어느 기업의 사 은 이벤트라며 탑승객들에게 번호표를 나누어 주 고는 당첨되는 사람에게 고가의 시계를 증정하겠 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추첨함에서 두개의 번호를 뽑아서 필자를 포함한 두 명의 승객이 당 첨되는 행운을 안게 되었다. 다만, 당첨품인 명품 시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이유로 몇 만 원의 돈을 요구했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을 건 내자마자 짧디 짧았던 사은이벤트는 종료되었고 버스는 바로 서울로 다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예 상대로 시계는 도금한 플라스틱 모조품이었다. 당 시 더욱 언짢았던 점은 그 사기꾼들이 버스 승객 을 한번 훑어보고는 승객 중 잘 속아 넘어갈 것 같은 사람에게 정해진 번호표를 미리 나누어 주 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몇년 전, 가족들과 드라마 '응 답하라1994'를 시청하는데 극중 인물 중 필자

와 생김새가 가장 비슷한 '삼천포(김성균 분)' 가 똑같은 수법의 사기를 당하는 에피소드가 소개 된 적이 있다. 추억팔이 드라마라고는 하나 수십 년전의 스토리 발굴 및 그 고증에 대한 디테일에 놀랐고 한편으로는 '나만 어리숙하게 당한건 아 니였구나'라는 때늦은 위안도 얻었다.

은행은 금융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빼앗기게 되는 크라임신의 크라이막스 무대이다. 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이 다름아닌 은행에서 자신 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 거액대출을 미끼로 사채로 빌 려 쓴 돈을 이미 사기꾼에게 송금한 피해자가 은 행창구에서 본인이 당한 것을 알고 목이 쉴 정도 로 울부짖다 끝내 기절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지점에 잠시 출장차 방문한 터였 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넘게 그 잔상이 마음을 짖누르며 나를 괴롭혔으니 당사자의 마음이 어땠 을지 짐작되고 남는다. 그리고 입사 초기, 당시 고 위 공무원 이었던 아내의 가까운 친척분 또한 사 기극에 휘말려 치명적인 피해를 당한 바 있다. 동 남아 어느 국가의 왕실이 한 서방국가로부터 SOC 사업을 위해 받은 거액의 차관을 한국에서 관리하 며 해당국가의 SOC개발 건설 시공권을 국내 건설 사와 연결하는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를 총괄하 는 시행사의 대표는 과거 군부시절 당시 유력가문



출신의 재미교포로 그 몇 해 전부터 의도적으로 그 친척분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아왔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당시 어느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 해당 왕국의 왕실 출신 공기업 회장이 한국에 방문하여 체결한 프로젝트의 협약식이 기사로까지 나왔으니, 작업(?)은 꽤 성공적이었다.

이윽고 프로젝트 책임자라 자칭한 그 사기꾼은 프로젝트 초기 진행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당시 강남 아파트 두채가 넘는 돈이 선금으로 건네졌다. 그러나 차관 자금은 바램과 달리 끝내 입금되지 않았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한번에 탕진한 그 친척분의 이후 삶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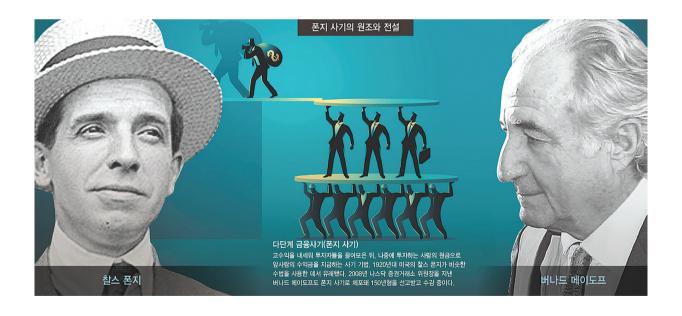
이후에도 업무 성격 때문인지 비슷한 수법의 사기에 휘말린 분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였으며 그목격담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니 정부투자청에서 투자신고서가 발급되고 투자계약서까지 완벽한 프로젝트의 투자금은 투자에 대한 커미션 또는 투자진행비 등을 건내고 나면 대게 자금 집행은 기약없이 지연되며 끝내사기극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실 사기를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 (맘먹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마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그도 그릴 것이 '미끼'와 '먹이'는 그 뒤에 걸려있는 낚싯바늘이 보이지

않는다면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마치 영화 '곡성'의 잊히지 않는 대사 "미끼를 확 물어분 것이여"처럼 '미끼'와 '좋은 먹잇감'을 구별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개 '미끼'임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은 예외이며 절대 속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이며 아울러 "인간은 생존을 위해 서로 신뢰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성은 의심보다는 신뢰하기가 더 쉽다"는 어느 심리학자의 말 또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결국 '공돈을 줄테니 돈을 먼저내라'고 하는 제안처럼 '투자 또는 대출을 미끼로 선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는 그냥 제쳐두고 사기라고 판단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않는 방법인 듯 싶다.

한편,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한 사기수법 외에도 다수를 타겟으로 한 투자사기에도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이 쉽게 걸려드는 경우가 많다. 국내의 경우 희대의 조희팔 사건 이후에도 IDS홀딩스를 비롯하여 조단위가 넘는 투자사기들이 그치질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완화된 규제가 단초가 된 편 드사기 또한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바 있다. 정당한 투자실패야 어쩔수 없겠으나 사기를 목적으로 설계된 펀드들마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금융기관 및 감독당국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 또한 금융사기로 얼룩진 역사가 많다. 대표적으로 지금으로부터 백 년 전, 신규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 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로 미국을 들썩였던 폰지는 이후 다단계 금융사기를 지칭하 는 대명사가 되었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난 후, 대표적인 유태계 금융인으로서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까지 역임한 버나드 매도프 또한 650억 달러 에 달하는 폰지사기 수법을 벌이다 2008년 발각 되어 150년의 징역형과 함께 전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꾼이란 멍에를 지게 됐다. 고령의 나 이와 위중했던 지병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허락 되지 않았던 매도프는 지난 4월, 결국 세상을 등지

고 나서야 교도소를 벗어나게 되었다. 매도프 사건 이후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이 폰지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한 만큼 더이상 다수를 대상으로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폰지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인류가 진화하듯 사기의 방법도 진화하는 걸까? 최근 실질가치가 없는 곳에투자를 유도해서 펌프질 하듯 가격을 올린 다음절정에서 해당 자산을 먼저 매도하는 펌프앤덤프 (PUMP&DUMP) 시세조작사기가 폰지사기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곤한다. 그리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상화폐 시장이 떠오르는 건 '그냥 기분 탓'인 것으로 남겨두어야 할 만큼 '주위의 수많은'투자자들을 의식해야만 하는 요즘인 듯 싶다.



모집대상

글쓰기에 관심있는 인도네시아거주 고등학생

모집기간

2021년 6월 1일~ 8월 30일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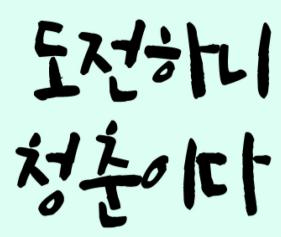
관심분야 기사 혹은 에세이(A4 한두 장 분량), 학생증사본

제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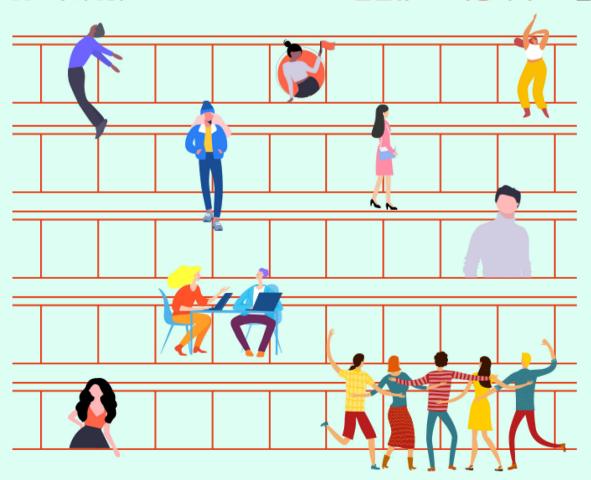
간단한 프로필과 관련 서류를 haninnewsinni@gmail.com으로 송부

접수 및 문의

한인뉴스 홍석영 편집장 0818 711246



따뜻한 감성으로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할 한인뉴스 학생기자 모집





1959년 12월 18일 자카르타 재판정의 앨런포프

지난 호에 이어

이 일로 미국은 불쌍할 정도로 체면을 구겼고 CIA 의 활동내용에 대해 쏟아져 나온 국제적 비판여론은 미국을 더욱 구석으로 몰아세웠다. 격분해 펄펄 뛰던 수까르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국은 군사원조를 제안하고 루피아 무역결제를 허용하는 등 인도네시아에 유리한 제반 조건들을 내밀었고 다른한편으로는 부득이 PRRI와 뻐르메스타에 대한 모든 군사원조를 중단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PRRI와 뻐르메스타는 그 위력의 상당부분을 상실하게된다. 그러는 동안 정부군과 뻐르메스타의 전쟁은 더욱 격렬해져 몇몇 전략적 지역에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정부군은 P-51 머스탱 전투기로 마빵엇 비행장을 공격해 상당수 대공포들을 파괴했지만 뻐르메스타 측의 반격도 만만찮아 정부군은 세 대의 항공기를 격추당하면서 공격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뻐르메스타의 병사들은 대부분은 과거 KNIL 부대출신들로 나이는 많았지만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매우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1959년 2월 17일 뻐르메스타군은 '자카르타 스페셜 1호'이라는 작전명으로 전 전선에서 총공세를 펼쳤다. 뻐르메스타군은 몇몇 전술목표를 몇 시간 가량 점령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정부군의 육군과 공군이 반격하여 곧 탈환하면서 전체적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정부군의 계속된 반격으로 그동안 뻐르메스타군의 가장 강력한 거점이었던 몇몇 전략적 요충지들마저 내어주어야 했다. 앨런포프 사건으로 반란군의 혁명공군이 무력화되자 정부군은 '독립작전'이란 작전명의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반란군 수도인 마나도 침공을 시도했다. 정부군은 반란군을 단시간 내에 마나도에서 몰아냈고 반란군은 똔다노 호수 인근 지역에서 게릴라전으로 방어작전에 나섰다.

점차 궁지에 몰려가던 뻐르메스타 측은 1960년 중앙정부와의 대화의사를 밝혔다. 뻐르메스타 측 은 군사령관 알렉스 에버트 까윌라랑 소장이 나섰 고 중앙정부에서는 육군참모장 니콜라스 본단이 나왔다. 이 회합을 통해 뻐르메스타군은 TNI 정부 군을 도와 자바섬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겠다







돌프 룬드람비 대령



쁘띳 무하르또

는 중재안을 내밀며 합의를 시도했다. 1961년 중 앙정부는 대통령령 322호를 통해 투항하는 PRRI 와 뻐르메스타 연루자 모두를 무조건 사면, 복권키 로 했는데 이는 PRRI와 뻐르메스타 반군들뿐 아니 라 서부자바와 아쩨, 중부자바, 남부 깔리만탄, 남 부 술라웨시에서 아직 반정부 게릴라로 활동 중이 던 다룰이슬람 반군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이 법령이 발표됨에 따라 많은 뻐르메스타군은 즉 시 투항하기 시작했고 D.J. 솜바 대령, 까윌라랑 소 장. 돌프 룬뚜람비 대령, 쁘띳 무하르또 까르또디 르죠 대령, 펜쩨 수무알 대령 등 수뇌부는 부하들 을 모두 내보낸 후 제일 마지막으로 숲에서 나왔 다. 사면과 복권은 그들에게도 적용되었고 이로서 뻐르메스타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대령 뻐르메스타 반란의 주동자들 대부분이 중앙 정부에 충성을 약속하고 사면, 복권되었지만 욥 와 로우만은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야콥 프레드 릭 와로우는 흔히 욥 와로우(Joop Warouw)라 불 렸다. 그는 1917년 9월 8일 생으로 제2차 세계대 전 이전에 KNIL에 입대했다가 인도네시아의 독 립선언 이후 수라바야에서 술라웨시 인도네시아 공화국 청년민병대(PERISAI)에 가입해 나중엔 PERISAI의 부대장자리까지 올랐다. 이 그룹은 수 라바야에서 술라웨시 인도네시아 민중공동체(끄 리스-KRIS)라고 알려졌다. 그는 수라바야 전투 에서 용맹을 떨쳤고 1946년부터 라왕의 제6해군 사단 참모장, 시뚜본도의 제10기지 참모장 등 군

주요보직을 섭렵했다. 1948년 제16여단 부사령 관이 되었다가 필리핀을 통해 미나하사 침공을 계 획했던 친구 아돌프 렘봉 대령의 뒤를 이어 여단장 으로 승진했다.

1950년 4월 와로우는 B군사령부로 부임하는데 이 부대는 1952년 제24보병연대로 재편성되어 마나도에 본부를 두고 북부와 중부 술라웨시의 치 안을 담당했다. 1950년 11월 그는 빠레빠레의 제 23보병연대장으로 발령받고 1952년 3월엔 동인 도네시아 제7 지역군 참모장이 된다. 자카르타에 서 10월 17일 사태가 벌어진 후 와로우는 상관인 가똣 수브로또를 해당사태에 동조한 혐의로 체포 하며 중앙정부에게 충성심을 과시했고 그 결과 가 똣 수브로또가 맡았던 동인도네시아 제7 지역군 사령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야콥 프레드릭 와로우



제999여단. 가운데 뚱뚱한 사람이 얀 띰블렝

와로우는 제7 지역군을 펜쩨 수무알 중령에게 인 계하고 1956년 베이징 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하다 가 지역자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던 1958년 2 월 수무알과 함께 토쿄로 날아가 이미 장기간 외 유중이던 수까르노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인도 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던 위기상황에 대한 명확 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수까르노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와로우는 베이징 무관직을 내팽개치고 곧장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PRRI 반란에 가담했고 1957년 3월 2일 수무알이 선언한 뻐르메스타 운 동에도 참여했다. 그는 수무알, 알렉스 까윌라랑과 함께 뻐르메스타 운동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고 뻐르메스타 반란군이 PRRI 반란군과 연횡 종대하자 와로우는 PRRI의 부총리 겸 건설부장관 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에겐 유연하게 시류를 타 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잠시뿐이었다. 중앙정부의 진압군이 1960년 북부 술라웨시를 점령했을 때 와로우는 그해 4월 그와 대립하던 얀 띰불렝의 뻐르메스타군 제999여단 제7 대대에게 체포되어 6개월 동안 감금되었다가 1960년 10월 15일 살해당했다. 우군에게 당한 것이다.

뻐르메스타 반란군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킨 얀 띰 블렝은 당시 PRRI의 고관 와로우와 그 일행이 회

합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와로우의 무릎을 쏴 체포하고 그의 일행을 몰살시키는 사건을 벌였다. 예전부터 아군들마저 두려움에 떨게 한 잔혹함으 로 악명을 떨친 얀 땀쁠렝의 악행은 이미 사면복 권이 가능한 수준을 훌쩍 넘어버린 상태였으므로 당시 진행되고 있던 정부군과 협상을 반대하며 와 로우를 인질로 납치했던 것이다. 펜쩨 수무알 대령 이 와로우를 구출하기 위해 얀 띰블렝과 그의 부대 를 10월 8일 한 회합에 불러내지만 그 의도를 눈 치챈 얀 띰블렝은 극렬히 저항하다가 사살당했고 그 자리에서 살아서 빠져나간 잔당들이 수무알 대 령의 병력이 도달하기 전, 근거지에 감금하고 있던 와로우를 끌어내 살해했던 것이다. 얀 띰블렝은 금 강불괴 주술이 걸린 반지부적을 사용해 소총 실탄 도 그의 몸을 관통할 수 없었으므로 그를 죽일 때 특별한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하며 그가 잔혹한 성 품도 오랜 기간 사용한 주술의 부작용이었다는 야 사가 전해진다.

뻐르메스타 반란의 핵심인물 대부분이 천수를 누린 반면 와로우는 같은 편에게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아 1960년 10월 15일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 후에 탐문하고 수색해도 발견되지 않던 와로우의 시신은 긴 세월이 흐른 후인 1992년이 되어서야 똠바뚜 인근에서 비로소 발견되어고향인 렘보껜에 안치되었다.



혹트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30초의 기적입니다. 아래의 운동 목록과 사진을 참조하시어 집에서도 멋진 몸 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족, 친구들에게 증명해 보세요.

이번 달 운동과제는 첫 번째 6가지 운동을 30초간 수행하 고 모두 끝나면 1분 휴식 후 다시 두 번째 라운드 6가지 운 동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운동 과제를 마치고 약 3분 후 숨을 고른 후 다시 두 번째 운동 과제를 첫번째 운 동 과제와 동일하게 각각 30초씩, 2라운드를 수행합니다.

1번째 운동 과제 2 라운드

- Jumping Jack
- Reverse Lunge
- Jumping Jack
- High Knees
- Jumping Jack
- Plank
- * 1분 휴식

2번째 운동 과제 2 라운드

- Toe Touch
- Skate
- Toe Touch
- Sit Up
- Toe Touch
- V-Up
- * 1분 휴식

운동 요령

■ 첫 번째 운동 과제

1. Jumping Jack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벌려 뛰기입니다.

발은 11자로 모은 상태에서 양손은 다리에 붙이고 준비. 양발을 어깨 너비로 펼치고, 양손은 펼쳐서 머리위로 올리 고, 이후 반대동작으로 준비동작과 동일한 동작으로 이동. 30초 동안 반복



2. Reverse Lunge

- 양발을 어깨너비보다 약간 좁게 선 상태에서 준비한다.
- 왼쪽 다리부터 뒤로 빼주고, 이때 손은 가지런히 모아 얼굴 높이로 위치한다.
- 이후 일어나면서 다시 준비자세로 돌아간 후
-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면서 Lunge를 한다. 이렇게 30초 동안 운동 수행









3. Jumping Jack

1번의 Jumping Jack을 다시 30초간 수행한다.







4. High Knee

양발을 어깨너비보다 약간 좁게 벌린 후 왼쪽부터 무릎을 허리 높이까지 올린다. 이후 오른쪽, 왼쪽을 반복하면서 30초간 수행.

5. Jumping Jack

1번의 Jumping Jack을 다시 30초간 수행한다.



6. Plank

30초 간 이 사진과 같이 Plank 자세 수행.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을 Core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

이렇게 6가지 운동을 30초간 수행 후 1분 휴식 후 다시 1번부터 6번까지 30초간 수행 후 첫 번째 운동마무리.

약 3분 휴식 후 아래의 두 번째 운동 과제를 시작한다.

■ 두 번째 운동 과제

1. Toe touch

양발을 모으고 양 무릎을 약 10도정도 구부린 자세가 준비 자세. 이후 오른발을 약 60cm가량 오른쪽으로 점프 하고 이후 왼발을 오른발 쪽으로 이동 후 양발을 붙인다. 이후 동일하게 왼발을 왼쪽으로 점프후 오른발을 왼발 쪽으로 이동 후 양발을 붙인다. 이렇게 30초간 운동 수행.













2. Skate

양발을 모으고 양무릎을 약 10도정도 구부 린 자세가 준비 자세.

왼발을 왼쪽으로 60cm 가량 점프 후 오른 발이 따라가면서 왼발 뒤쪽으로 이동한다. 이후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발 이 따라 가면서 오른발 뒤로 위치한다.

이렇게 30초간 수행.

3. Toe Touch 1번의 Toe Touch를 30초간 수행







4. Sit Up

앉은 자세에서 양발을 모으고 준비. 이후 상체를 뒤로 제치면서 양손을 머리 위 바닥을 터치 후 다시 준비 자세로 이동한다. 이렇게 30초간 운 동 수행.

5. Toe Touch 1번의 Toe Touch를 30초간 수행

6. V-Ups

- 양팔을 머리위로 올리고 다리를 뻗은 상태로 준비
- 복근에 힘을 주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시에 다리를 들어 올려 손끝이 발가락 부분을 터치한다.
- 손끝이 발가락을 터치 후 다시 준비자세로 돌아온다.
- 이렇게 30초간 운동 수행

6가지 운동을 30초씩 수행하였으면 1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1번부터 6번까지 1셋트를 수행하면 운동 끝.

가능하면 1주에 4회 운동을 수행하면서 유산소 및 Core를 강 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ID "pac1jch" 또는 전화번호 081 338 964 258 입니다. 그럼 다음달에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2021년 5월 월간뉴스 브리핑

제공:데일리인도네시아

족자, 매일 아침 공공장소에서 국민의례 시행

족자카르타(족자) 주정부는 관내 모든 관공서와 학교, 공공장소에서 매일 아침 인도네시아 국가 (國歌)인 '인도네시아 라야' (Indonesia Raya)를 방송하거나 연주하는 국민의례를 지난 5월 20 일부터 시행했다.

족자 주지사이자 술탄인 하멍꾸부워노 10세가 지난 4월 18일 서명한 공문에 따르면, 족자 주 관내 각급 관공서와 학교에서 매일 오전 10시에 인도네시아 국가를 방송하는 국민의례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가 방송되면 공공장소에 있는 모든 시민은 바르게 서서 국가를 경청해야 한다. 민영회사의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국민의례에 참여해줄 것을 권고했다.

하명꾸부워노 10세는 공문에 국가정체성을 고취하고 국가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족자 지역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국민의례는 국가 기념일인 '국민각성의 날'에 맞춰 지난 5월 20 일부터 실시됐다. 시행 첫날 족자왕궁에서는 왕 궁관현악단이 국가를 연주했으며, 각급 관공서와 학교에서는 국가가 방송되거나 국가를 제창했다. 공공장소에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기립했다. 족 자 시내 중심에 위치한 버링하르조 전통시장에서 는 국가가 방송되자, 시민들은 바른 자세로 섰고 일부 시민은 국가를 따라 부르거나 오른손을 왼쪽 가슴께에 얹기도 했다.

족자의 국민의례 시행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분분 하다.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는 국가정체성과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국민의례 시행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족자소재 빤짜실라연구소(Pusat Studi Pancasila)레스딴다 부디만 소장은 "인도네시아 국기, 언어, 상징 및 국가는 2009년 법률을 통해 규정되어있는 만큼 국민의례 시행에 재고가 필요하다"며 "매일 국가를 방송함므로써 오히려 국가에 대한경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코위 "모든 교육종사자, 6월 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면수업 재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4일 모든 교사·교육 종사자가 오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 종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대면 수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이 코로나19 팬데 믹 상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도 6월 말까지 교사·교육 종사자 500만명의 코 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7월부터 등교를 재개 한다는 계획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어 자국의 대면 중심의 교육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하 이브리드 교육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40,779개 학교가 인터넷 접속이 안 되고, 7,552개 학교는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온다.

5~14세 학생 가운데 54%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24%만 컴퓨터를 갖고 있다.

"74살 메가와티는 후계자로 아들과 딸 중 누구를 선택할까?"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도네시아공화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장녀인 메가와띠는 집권당 투쟁민주당(PDIP) 총재로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권력의 중심에 있겠지만, 나이를 이길 장사는 없다. 1947년 1월 23일 생인 메가와티는 올해 74살로 자당의 후계자를 확정해야할 시점이 임박했다. 만일 시기를 못 맞추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수카르노 정치가문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다음은 지난 5월 18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실린 꼬르넬리우스 뿌르바 자카르타포스트 주필의 칼럼을 인용해 메가와티와 권력의 승계 향방에 대해 살펴본다.

수카르노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민족주의 성 향의 투쟁민주당에서 수카르노의 혈통이 아닌 아 웃사이더가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 최근 투쟁 민주당 고위 당직자 하디 루디앗모 전 솔로(수라 까르따) 시장은 메가와티의 둘째 아들 쁘라난다 쁘라보워를 메가와띠의 후계자로 지목해 파장이 일었다. 메가와티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 번째 남편인 공군조종사 고(故) 수린드로 숩자르 소 대위 사이에서 낳은 장남 리즈끼 쁘라따마와 차남 쁘라난다가 있다. 비즈니스맨이자 정치인인 세번째 남편인 고 또삑 끼에마스 사이에서 낳은 딸 뿌안 마하라니가 있다. 뿌안은 조코 위도도(조코위) 정부에서 부총리격인 인력개발문화조정 장관을 지냈고 현 국회의장을 맡고 있어 대중적 인 인지도가 높다. 한편 리즈끼는 비즈니스맨으 로 활동하고 있으며, 쁘라난다는 투쟁민주당 정 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 지도가 낮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릴 전당대회에서 논의 될 당의 후계자와 관련, 고위 당직자 루디앗모의

발언에 대해 반응은 냉소적이다. 투쟁민주당의 당 헌에 따라서 메가와티 총재가 권력 승계를 포함 한 당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쁘라난다와 뿌안 두 유력 후계자는 신뢰할 만한 지도자로서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충분한 정치수업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에 반해, 메가와티는 1987년에 정치에 입문해 수하르토 정권하에서 탄압을 받으며 혹독한 정치훈련을 거쳤으며, 수하르토 퇴진 후 부통령과 대통령을 역임했고 2004년부터 연재까지 집권당 총재로서 풍부한 정치경력을 쌓아왔다. 1999년부터 지난 다섯 차례에 걸친 총선에서 대중적인 지지자들은 메가와티에게 절대적인지지를 보여준 만큼 그는 투쟁민주당을 결집하는 핵심인물이다.

인도네시아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1회 중임을 할 수 있는 만큼 조코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 메가와티의 결정은 매우 중대하다. 아직 정치수업을 받아야하는 쁘라난다와 뿌안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면 당내에 누가 대권 후보가될 수 있을까? 표면상으로 국가정보원(BIN)장을지낸 부디 구나완, 행정개혁장관인 짜요 꾸몰로, 내각사무처장 쁘라모노 아눙 등이 있으나 이들은모두 아웃사이더이다.

투쟁민주당이 메가와티 자신이 없이도 영향력 있는 당으로 유지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다면, 메가와 따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능하고 정치력 있는 후계자를 선택해야한다. 지금까지 유력한 선택지는 검증되지 않은 뿌안과 쁘라난다 두 사람뿐이다. 하지만 투쟁민주당 지지자들은 누가 당을 이끌어야 할지 알고 있다.

"환경재해에 취약한 도시 세계 1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심각한 대기오염과 지진 발생 가능성,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 등으로 인해 환경재해에 취약한 도시 1위에 올랐다.

영국의 위험분석 자문회사 '베리스크 메이플 크로프트(Verisk Maplecroft)는 12일 전 세계 576개 도시를 대상으로 환경재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 '글로벌 위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교통체증에 따른 대기오염과 매년 반 복되는 홍수 그리고 지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카르타를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재해에 취약한 도시로 평가했다.

스위스 공기질관리회사 IQAir는 지난 5월 21일 현재 자카르타를 세계에서 대기오염도가 8번째로 높은 도시로 평가했다.

IQAir는 올해 자카르타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과 조기사망으로 생산성이 하락해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4,000명이 조기사망할 것으로 추산했다.

스위스 과학저널 지오사이언스(Geosciences)는 2018년 호에서 자카르타를 지진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는 충적토양으로 가득 찬 분지에 자리잡은 도시라고 묘사했다.

자카르타는 매년 발생하는 홍수로도 잘 알려져 있다. 찔리웅강과 찌삐낭강 등 자바섬 서부를 흐르는 여러 강의 하류에 위치해 우기에는 보고르 등주변지역에서 많은 강물이 흘러 든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 사르만 시만조랑 자카르 타 지회장은 2020년에 자카르타에서 홍수로 인해 이재민 34,000명이 발생했고, 상점 영업 중단과 공급망 차질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1조 루피아(미화 7천만 달러 상당)로 추산했다.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자카르타 북부 일부 지역에서 지반침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도 계 속 나온다.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 보고서에 자카르타가 직면한 오염, 물 공급 감소, 이상고온, 자연재해 등의 문제를 다른 아시아 도시들도 직면하고 있 다고 썼다.

조사 대상이었던 전 세계 대도시 576개 중 환경재 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414개 도시에 거주 하는 인구는 총 14억 명에 달했다.

환경재해에 취약한 세계 100대 도시 중 99개가 아시아에 있었고, 이 중 인도의 도시가 43개, 중국 의 도시가 37개였다. 특히 상위 10개 도시는 인도 네시아와 인도에 몰렸다.

세계에서 환경재해에 취약한 도시 1위는 인도네 시아 자카르타, 2위는 인도 델리, 3위는 인도 첸나 이, 4위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5위는 인도 찬디 가르, 6위 인도 아그라, 7위 인도 메루트, 8위 인 도네시아 반등, 9위 인도 알리가르, 10위 인도 칸 푸르 순이었다.



KCC글라스, 중부자바 바땅산업단지에 생산공장 착공

한국의 종합 유리 전문기업 KCC글라스가 지난 5월 20일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바땅(Batang) 산업단지에서 생산공장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KCC글라스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계획 등 동남아 건설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고, 바땅산단에약 3억 달러(3천400억원)를 투자해 49만㎡(약14만8천평) 규모 유리공장을 짓기로 했다.

KCC글라스는 2024년 바땅산단 공장이 완성되면 연간 약 43만8천t의 건축용 판유리를 생산해 동 남아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자동차용 유리도 생산할 계획이다. 자 카르타 외곽 버까시 지역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올 연말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KCC글라스는 단계적으로 공장을 증설해 해외 시

장 공략을 위한 '종합 유리 클러스터'로 키워나 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땅산단에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업체, 타일업체,파이프 업체 등의 입주 를 추진 또는 협상 중이다. 바이오 · 의약품 산업 분야 투자도 바땅산단에 유치하고자 한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박태성 대사는 "KCC글라 스 투자로 중부자바는 봉제·신발 같은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집약 산업으로 다변화하게 됐다" 며 "바땅산단이 배터리기업 투자 등 전기차 생 태계 조성 사업의 거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4월 수출액은 184억8천말 달러, 수입액은 162억9천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액은 21억9천만 달러다.

수하리얀또 BPS 청장은 흑자 폭이 줄지 않고 오히려 전월보다 증가했다며, 상황이 매우 좋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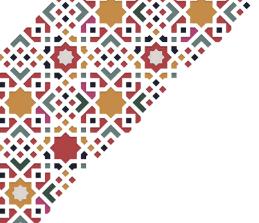
또 다른 경제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는 올 4월에 54.6을 기록했다. PMI가 5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제조업 활동이 증가했다

는 의미이고, 50 미만이면 위축됐다는 의미이다. 수하리얀또 청장은 "지역별 분야별 편차는 있지 만 회복과정에 들어섰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국가별로, 인도네시아는 미국(12억 달러), 필리 핀(5억5,400만 달러), 인도(4월3,900만 달러) 등 국가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중국(6억5,200만 달러), 호주 (4억1,830만 달러), 태국(2억4,810만 달러) 등 과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간 무역수지 흑자 누적액은 77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억2 천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다



하빕(habib) 캬이(kyai) 우스탓(ustadz) 하지(haji)

(Hevlen)/ HOTEL GRAN MELIA

지난 5월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신도들의 큰 명절이었던 이둘 피트리-Idul Fitri, 죄와 잘못으로부터 다시 깨끗해진다는 의미(kembali suci) 가 있었던 신성한 달이었어요. 이번 6월호에서 이둘 피트리에 대해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도 명확하게 설명하기어려울 수 있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와 관련이 있는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해요. 바로, 하빕(habib), 캬이(kyai), 우스탓(ustadz), 그리고 하지(haji)인데요. 하빕(habib)부터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법(habib)은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비비(Habibie) 전 대통령의 이름에 하법(habib)이 들어가 있는 것 아시지요? 하비비(Habibie)는 '나의 사랑(cintaku)'이라는 뜻이에요. 하법(habib)은 의사, 교사, 상인 같은 그런 직업을 뜻하는 말은아니에요. 라술(rasul, 사도)의 자녀를 하법(habib)이라고 부르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과 사위를 '하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계 사회인 아랍 국가에서 라술의 딸과 결혼한 사람은이슬람 신자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특권을 갖는 셈이에요. 신은 라술에게 아들을 보통 내려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라술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도들로부터 특별대우를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술의 자녀는 딸인 경우가 많고 아들이 태어나더라도 성인이 되기 전에 일찍 죽는 일이 많아요. 이슬람 문화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신격화'할 정도로 특별히 대우하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에서 '하법'은 공동체 내에서 종교지도자와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나들라툴울라마(Nahdlatul Ulama, 이슬람단체) 신도 사회에서 이런 경향을 짙게 볼 수 있고, 무하마디아(Muhammadiyah) 신도 사회에서는 '하법'은

캬이(kyqi)는 아랍어도 아니고 인도네시아어도 아닌, 그 어원이 중국어랍니다. 캬이(kyai)는 '삶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어로 'LauTze(스승, '라오쓰')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캬이(kyai)가 아랍어는 아니지만 '종교를 살리다는 뜻의 알 하이(Al Hayi)라는 아랍어와 조금 연관성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캬이(kyai)는 이슬람 기숙학교(pesantren)와 관련이 깊어요. 이 기숙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캬이(kyai)라고 하는데요. 캬이는 보통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요. 쁘산뜨렌(pesantren)은 전통적으로는 시험을 치거나 졸업장을 주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요즘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춰 졸업장도 주고 종교가 아닌 과목들도 함께 가르치고 있어요. 캬이(kyai)도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삶의 깊은 지혜를 줄 수있는 사람을 캬이(kyai)라고 불러요. 무슨 날 결혼을 하면 좋을지, 언제 농번기 수확을 하면 좋을지, 포경수술은 언제 하면 될지 처럼 일상의 대소사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거나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불화가 있을 때에도 캬이(kyai)에게 지혜를 구해요.

우스탓(ustadz)은 '교사(guru)'라는 아랍어에서 온 말이에요. 예를 들면 ustadz matematika는 수학 교사, ustadz bahasa Inggris는 영어 교사 이런 식으로 인문과학은 물론예술과 체육 등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조금 축소되어서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독특한 점은 어떤 교육기관의 정식 졸업장이 있어야 우스탓(ustadz)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슬람의 율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로 우스탓(ustadz)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공부하고, 또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우스탓(ustadz)이라는 칭호로 불리는 사람이 많아요. 코란 경전에도 '무슬림들은 선생도 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도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 우스탓(ustadz)도 직업은 아닌 셈이죠?

하지(haji)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메카를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일평생 한 번은 메카 순례를 하는 것이 회교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의무이지요. 기도(salat)나 자캇(zakat, 구빈세), 금식(puasa)처럼 하지(haji)도 회교도인들이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 중 하나예요. 하지(haji, 메카 순례)를 다녀오면 Pak Haji, Ibu Haji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름 앞에 하지(haji)를 붙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Haji라고 마을 이웃들이 불러준다면 종교에서 금하는 악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무의식적 부담이 되기도 하니,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랍에서는 모든 사람이 메카 순례를 하기 때문에 순례를 했다고 해서 하지(haji)를 붙이는 일은 없다고 해요. 이렇게 보다 보니, 하지(haji)도 직업이 아니네요.

하빕, 캬이, 우스탓 모두 차림새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하빕(habib)은 발의 복숭아뼈 길이까지 오는 긴 옷을 입어요, 중동 스타일이죠. 캬이(kyai)는 뻬지(peci)를 머리에 쓰고요, 지역 전통복을 입거나 바틱을 입기도 해요. 우스탓(ustads)은 특별히 정해진 옷이 없이 자유롭게 입을 수 있고, 머리를 꼭 짧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스탓도 볼 수 있답니다. 하지(haji)는 보통 흰 모자를 써요.



이번 6월호의 내용은 우스탓(Ustadz) 위자얀토(Wijayanto)님을 인터 뷰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우스탓 위자얀토 님은 솔로 출생으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이슬람국제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한국에도 6차례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늘 '잘 익은' 흰 쌀밥에 김치, 계란 후라이, 이렇게 간소하게만 먹어도 정말 배부르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기회가 닿으면 이태원에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유투버인 장한솔같은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순차 통역으로 멋지게 설교 내용을 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네요.

(번역: 민선희)



나는 생 하사로 수다떤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저자

6월호 주제는 비빔밥이에요.

Bibimbap adalah salah satu makanan Korea yang sering muncul di drakor. (비빔밥은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한국음식 중 하나예요.)

한국 드라마 한 장면에 여성이 등장한다. 직장 동료와 싸웠는지 남자친구와 싸웠는지 짜증이 나 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자는 냉장고를 열어 이 반찬 저 반찬 다 꺼낸다. 여자는 밥을 푸지게 퍼서 꽤 큰 양푼에 담는다. 아까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을 넣고 고추장으로 비벼, 맛있게 퍼먹는다. 비빕밥을 싹 비운 여자는 짜증이 언제 났었는지 까맣게 있는다. 비빔밥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소울 푸드'가 아닐까. 허기진 배를 채우고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주는.



비빔밥 먹고 스트레스 날리고

Makan Bibimbap. Stres Lenyap

Ada adegan drama Korea di mana seorang wanita yang lagi kesal degnan rekan kerja atau pacar. Sesampainya di rumah dia membuka kulkas untuk kemudian mengeluarkan semua lauk yang ada di dalamnya. Dia mengambil banyak nasi dan memasukkannya ke dalam wadah yang cukup besar dan berwarna abu-abu. Dia mulai mencampurkan nasi dengan lauk-lauk dari kulkas itu dengan gochujang. Kemudian, dia makan dengan lahap. Setelah menyapu bersih bibimbap, wanita itu bisa melupakan apa yang membuat dia kesal tadi. Dari sinilah, tergambar bahwa banyak orang Korea yang memilih bibimbap sebagai 'comfort food' yang mengisi perut kosong dan menenangkan hati yang resah.

영양 만점, 비빔밥

Bibimbap, Sarat Gizi

비빔밥은 나물, 소고기, 고추장을 한 그릇에 밤과 함께 담은 음식이다. '나시 짬뿌르 (섞은밥)'라고도 쉽게 부를 수 있는 비빔밥은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을 음식이다. 특히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면 말이다. 비빔밥은 맛도 있지만 영양 면에서 균형 잡힌 음식으로 평가 받는데, 그 이유는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빔밥은 밥에 올려져 있는 갖가지 나물을 고추장과 섞어 먹는다. 밥 색깔이 약간 빨간색이되도록 발효 소스인 고추장을 밥에 골고루 비빈다. 고추장은 각기 다른 나물의 맛을 조화롭게 해준다.

Bibimbap adalah nasi dengan sayur, daging sapi, saus cabai gochujang dalam satu mangkok. Bibimbap atau dengan sebutan mudahnya'nasi campur', sudah tidak asing lagi di telinga banyak orang Indonesia, terutama bagi yang menggemari budaya Korea. Bimbibap dinilai sebagai makanan yang seimbang dari segi rasa dan gizi karena mengandung karbohidrat, protein, dan serat.

Sebelum makan, kita mencampur nasi dengan beragam sayur di atas nasi dan saus cabai merah atau *gochujang*. Saus cabai hasil fermentasi ini harus menyatu merata dengan nasi hingga warna nasi menjadi sedikit merah. *Gochujang* membantu mengharmoniskan semua rasa khas sayuran yang ada.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비빔밥을 먹게 되었다

Cerita bagaimana orang Korea mulai makan bibimbap

비빔밥을 먹게 된 몇 가지 유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농부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 새참시간을 지나치자 비빔밥을 먹게 되었다는 것인데, 집에서 논으로 챙겨 나온 나물을 밥에 비벼먹자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다 함께 비빔밥을 먹고 바삐 논으로 돌아가일했다는 이야기다.

비빔밥을 먹게 된 것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먹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오랫동안 먹지 않고 있던 나물을(채소를) 먹어 없애려고 섞어 먹었다는 것인 데, 맞다, 간편하게 먹으려는 의도라 할 수 있겠다.

Ada beberapa cikal bakal budaya makan bibimbap. Salah satu ceritanya dimulai dari kebiasaan para petani yang terlalu giat bekerja hingga sering melewatkan jam makan siang. Para petani punya ide untuk mencampur nasi dengan berbagai macam sayuran yang dibawa ke sawah dan menyantapnya bersama—sama agar bisa segera kembali bekerja.

Ada pun sebagian orang yang beranggapan bahwa makan bibimbap berawal dari saat orang Korea makan sisa makanan sesajen setelah upacara sembahyang untuk leluhur. Cerita lainnya, orang Korea membuat bibimbap untuk menghabiskan sayur yang sudah lama tidak dimasak, kemudian dimakan dengan cara mencampurnya, yah, supaya mudah untuk dimakan.

오색 비빔밥

Bibimbap dan lima unsur warna dasar

다채로운 색을 띄는 채소 고명이 얹어진 비빔 밥 한 그릇을 보고 있으면, 그 색이 너무 예뻐 차마 고추장과 섞어 먹기가 아깝다. 비빔밥은 5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두운 색(흑색)은 버섯, 붉은 색은 당근, 초록색은 나물, 흰색은 밥과 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은 비빔밥 한가운데 놓인 계란 노른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재료들은 색이 같은 다른 재료로 교체도 가능하다. 이 다섯 가지 색깔을 한국어로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하늘-불-땅-바람-물 같은 자연의 다섯 가지 조화로운 기운을 의미한다.

Kalau melihat semangkok besar bibimbap dengan sayuran pelengkap yang berwarnawarni, rasanya tidak tega mencampurnya dengan gochujang karena kombinasi warnanya begitu cantik. Bibimbap terdiri atas 5 warna sayur, yaitu warna gelap yang didapatkan dari jamur, merah dari wortel, hijau dari sayuran, putih dari nasi dan lobak, dan yang terakhir adalah kuning dari telur yang diletakkan pada bagian tengah bibimbap. Bahanbahan ini masih bisa diganti dengan yang lain selama warnanya sesuai lima unsur dasar tersebut. Lima warna ini disebut'obangsaek' dalam bahasa Korea, dan memaknai 5 unsur harmonis alam semesta seperti langit-api-bumi-angin-air.



뭐든 섞으면, 비빔밥이 뚝딱!

Apapun kalay dicampur, jadilah bibimbap

나물과 소고기 말고도 비빔밥 재료는 많다. 나물을 삶거나 볶고 양념을 한 걸 주재료로 하긴 하지만, 각종 김치나 멸치 반찬도 맛있는 재료가 된다. 옛날에는 학교에 급식이 없어 도시락을 들고 다녔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반찬을 들고 와서 교실에서 비빔밥을 해먹자고 하는 때도 있었는데, 갖고 온 비빔밥 재료를 다 섞으면 기똥차게 맛있는 비빔밥이 된다! 같은 반 친구들과 다 같이 비빔밥을 먹었던 건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다.

Bahan bibimbap tidak hanya dari sayuran dan daging. Memang bahan utamanya adalah sayur yang direbus atau ditumis kemudian dibumbui. Namun berbagai macam jenis kimchi dan lauk ikan teri pun bisa menjadi isian yang enak.

Dulu, ketika belum ada kantin yang dikelola pihak sekolah, semua anak Korea membawa bekal nasi ke sekolah. Terkadang mereka bersepakat untuk membawa lauk yang berbeda-beda untuk makan 'bibimbap' ramai-ramai di ruang kelas. Mereka mencampur semua isian yang mereka bawa. Jadilah bibimbap yang rasanya maknyus! Makan bibimbap ramai-ramai dengan teman sekelas menjadi salah satu kenangan indah dari masa sekolah.

전주, 비빔밥으로 제일 유명한 도시

Jeonju, kota yang paling terkenal dengan bibimbap

전주비빔밥은 조선시대 때 진미 중 하나였다. 전라도 전주에서 유래한 비빔밥은 맛과 영양이좋은 것으로 유명해 한양의 양반들이 전주에 내려와 비빔밥을 먹을 정도였다 전주 비빔밥은 양념한 육회를 쓰고, 가지런히 놓은 나물 사이 가운데에 날계란 노른자를 얹는 게 특징이다.함께 먹는 음식으로 맑은 콩나물국을 낸다.

Jeonju bibimbap merupakan salah satu makanan teristimewa pada zaman Dinasti Joseon. Bibimbap yang berasal dari kota Jeonju, Provinsi Jeolla-do, sangat terkenal dengan rasa dan gizi sehingga banyak bangsawan Kota Hanyang(wilayah Seoul pada zaman Joseon) yang turun ke Jeonju untuk makan bibimbap. Ciri khas Jeonju bibimbap adalah memakai daging sapi mentah yang dibumbui dan di antara sayuran pelengkap yang berjejer, terlihat kuning telur mentah. Sebagai pendamping, biasanya disajikan sup tauge yang bening.

〈참고자료〉 25 Kuliner Korea yang sering Muncul pada Drama (Kompas, 2020.6.7)
5 Fakta Menarik Seputar Bibimbap Khas Korea Selatan, Cocok untuk Bekal (IDN Times, 2019.10.7)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섞어 비빈 밥' 이라는 뜻을 가진 전통음식의 여왕 '비빔밥

나를 쑥쑥 키우는 인니어 질문은 여기로 ☞ husantara817@daum.net



SUDESTADA

(Menteng)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가족의 달, 5월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올해 르바란 연휴도 짧아지고, 자유롭게 여행도 못 가고, 집콕만 하느라 매우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도 작년에 이어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자카르타 시내에서 즐기는 세계여행, 아르헨티나편! 멘뗑(Menteng) 지역에 있는 아르헨티나식당 ⟨SUDESTADA⟩를 소개합니다! 높은 층고와마법의 성을 연상시키는 내부 인테리어로 인해 마치 외국에 온 느낌이 듭니다. 멋진 식당 분위기뿐만 아니라 다채롭고 맛있는 음식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 곳이지요~

자~이제 본격적으로 이 곳의 추천 음식들을 살펴 볼까요? 우선 애피타이저로 입맛을 돋구는 Quinoa Salad(100,000루피아++)입니다. 퀴노아 샐러드는 아르헨티나 전통 음식은 아닌데요. 칼로리도 낮고, 육류와 채소와 궁합이 좋아, 육류 음식이 대부분인 아르헨티나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퀴노아가 신선한 야채,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견과류, 상콤한 소스 등과 어울려져 입맛을 돋구는 뿐 만 아니라, 기름진 아르헨티나 음식들의 느끼함을 중간중간에 잡아 줍니다. 참고로 슈퍼 푸드로 각광받는 퀴노아는 고대 잉카문명 시절부터 재배된 고단백 및 고영양 곡류로, 원산지가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의 고원이라고 해요.

둘째, 아르헨티나 전통 음식을 대표하는 Empanadas (우리나라의 만두보다 크기가 좀 더 큰 미트 파이)입니다. Empanadas Platter(130,000루피아++)은 Ham&Mozzarella, Hand-Cut Beef, Spinach&Ricotta 중 2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단품으로도 각각 주문이 가능해요. Ham&Mozzarella는 모짜렐라 치즈가 듬뿍담긴 피자맛, Hand-Cut Beef은 다진 쇠고기가 가득한 미트 파이맛, Spinach&Ricotta는 시금치가 가득한 까르보나라맛입니다. 세 가지 중 Spinach&Ricotta Empanadas를 강추합니다! 해당 메뉴 주문 시, 즉시 반죽을 하고 오븐에 굽기때문에 따끈따끈 바삭바삭 정말 맛있어요:) 무엇보다도 내용물이 매우 알차요! 단, 음식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요~

셋째, 아르헨티나식 소시지인 Chorizo입니다. Chorizo Platter (180,000루피아++)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혼합된 소시지인 Chorizo Argentino, 쇠고기와 파프리카로 만들어진 소시지인 Salchica Parrillera, 쇠고기와 허브/치즈로 만들어진 소세지인 Fresh Herbs&Cheese 중 2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곳에서 직접 만든 소시지인지라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소시지가 매우 신선합니다! 거기에다 속이 참 알차요~ 함께 나오는 바질 소스와 곁들여 먹으면 그야 말로 금상첨화입니다. 독일식 소시지 저리가라입니다~ 사실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요리는 쇠고기 바베큐인 Asado인데요. 속이 더부룩하지 않게 고기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딱입니다! 마지막으로 Roasted Octopus (200,000루피아++)입니다. 이 음식도 아르헨티나 전통 음식은 아니지만 중남미를 대표하는 문어 요리입니다. 이 메뉴가 테이블에 서빙되는 순간, 우선 문어 크기와 양에 놀라고, 이어 그 맛에 놀랍니다. 어쩜 문어가 이리 야들야들 부들부들할 수가 있을까요? 마치 쇠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듯합니다. 문어를 양념에 미리 재워둔 후, 그릴에 구워, 깊은 풍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도 간혹 문어구이를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다릅니다. 이 곳에서 꼭 드셔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에요! 별 두개 강추입니다!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에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많아 피자 요리가 다양하고 맛있다고 해요. 이 곳 SUDESTADA에도 다양한 피자 메뉴가 있으니 한 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대표 전통 디저트인 Alfajor(우리나라의 초코파이와 유사)도 다양한 맛으로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 한 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달콤한 디저트는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온 듯한 정말 행복한 맛입니다!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SUDESTADA>

음식 종류: 아르헨티나식

가격대 : Rp 6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 11:00~21:00 주소 : Jl. Irian No.18, Menteng

Jakarta Pusat

※ Google 참고



편집장의세계 《한인뉴스》 홍석영 편집장

인터뷰 진행: 이영미 편집위원

1996년 7월 창간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한인뉴스》가 300호를 맞이하였다. 별도의 예산 없이 창간 후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매달 3,500부씩 발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편집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2013년부터 디자인과 편집의 변화를 시도하며《한인뉴스》를 한층 더 성장시킨 홍석영 편집장을 열 번째 전문가로 모셨다.

Q. 으레 그렇듯 식상하지만 상식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3년 1월호, 199호부터 300호에 이르는 지금까지 한인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긴장과 걱정으로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있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 일하는 디자이너 Diki 에게 붉어진 얼굴을 가릴 틈도 없이, 적지 않은 나이에 물인지 불인지 모른 채 뛰어든 날좀 부탁한다며 성큼 한인회 편집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Q. '부탁'이라는 말이 나와서 묻습니다. 보통'부탁을 하는 편'인가요, '부탁을 들어주는 편'인가요?

다른 편집장들은 잘 모르겠으나 전 부탁하는 편이 많습니다. 광고나 원고, 사진 등을 부탁할 때나부탁을 받을 때, 둘 다 편치 않지요. 부탁을 하다 보니 부탁을 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몹쓸 짓 (?)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보니 거절도 약속도 어렵습니다.

Q. 내친김에 본인의 MBTI를 소개해 주세요. 본인피셜 재미로 보는 온라인 무료성격유형 검사와 어느 정도 일 치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나 지금이나 나를 알아가는 것이라면 뭐든 하려고 덤비죠.

5년 전 쯤 처음 한 결과는 INTP 였고, 몇 달 전에는 INFJ 가 나와서 MBTI는 제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전히 어떤 것은 고르기 쉽고 어떤 것은 모르겠더라고요. 문항이 지나가면서 답변도 아무 거나가 되기 쉬우므로. '논리적 사색가형'에서 '선의의 옹호자'로 진화를 했다는 말인가? 괜찮은 진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INTP도 INFJ 도 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나리오를 쓰게 된다면 인물의 캐릭터를 부여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평소 겨울왕국의 주인공처럼 차가움을 둘둘 두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본인의 생각이신가요? 그런 인상이라는 게 싫지 않습니다. '이미지는 어쩔 수 없나보다'합니다. 가끔 여러 번 말을 섞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더 다정하란 말인가? 또 실패구나'혼자 웃어요.

Q. 유난히 흰 얼굴에 가로로 길쭉한 커다란 외꺼풀 눈, 오뚝한 코, 앵두처럼 빨갛고 작은 입술, 검은 머리카락... 한국의 전통적인 미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인도의 미녀는 모조리 홑꺼풀입니다. 쌍꺼풀 없는 눈이 몽고인종의 특징 중 하나라지만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편집장님의 인상착의와도 상당히 겹쳐집니다. 가정법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러시면 제 사진을 못 올립니다. 공분을 살까 두렵습니다. 양반가에서 태어났으면 삼종지도 수호자로 '여자라서 햄 볶아요~' 했을 겁니다.

어차피 드라마가 주는 판타지로 하는 시간여행이니까요, 역적의 딸만 아니라면 그런대로 잘 살지 않았을까요? 붓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 리는 것. 수틀의 천에 수를 놓는 것. 매력있어요.



출처: 『한국의 미인도: 역사 속 여인의 정취를 찾아 떠나는』 (솔과학, 2009)

Q. 미국 공공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로버트 마이클은 《인생을 결정짓는 다섯 가지 선택》(책세상, 2017)에서 교육, 직업, 결혼, 자녀, 건강과 관련된 '선택의 경제학'에 대해 소개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윤택하게도, 빈곤하게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숨 쉬는 것을 빼고는 돈이 드는 세상, 홍 편집장님께서는 이윤(보람)이 남는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자기계발서를 이젠 읽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 일곱 가지, 열 가지... 다 그럴 듯합니다. 그런 책을 읽던 때는 그동안의 삶이 나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입은 닫고 책임과 역할에 성실하면 반드시 노력의 결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젊은이들은 읽기를 권합니다. 코로나가 주는 강제 휴식시간 덕에 직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한인뉴스를 선택한 것은 행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돈벌기... 그 어려운 것을 해냈답니다.

컨텐츠를 기획하고 스토리를 만드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것과 일이 연결되어 기뻤어요.

Q. 최근에 한국에서 자제분의 결혼식을 치르고 오셨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쓰신 '나는 혼주로소이다'로 시작하는 자가격리 15일의 기록 <격리숙소에도 봄은 온다> (《한인뉴스》 4월호, 2021)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참석 전의 이야기만 게재되어 아쉽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결혼식 풍경과 혼주로 자식의 결혼식에 참석하신 홍 편집장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 누구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인식이 됩니다. 그 세리머니 준비과정에서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밝혔듯 유전자를 주는 쪽이 약자이므로 자식과의 거리두기를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는 의연함이 필요했어요. 분리불안은 아이들만의 심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Q. 최근에 피아노를 다시 배우기 시작하셨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래된 짐으로 가득한 집이 답답했습니다. '피아노를 치울까?' 하다가 피아노에게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즐기는 것도 가능하기에 '내가 앞으로 뭘 하고 놀아야 재밌을까?' 에 대한 답이기도 했어요. 눈으로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여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잡지를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나는 또 맴도는 걸까?' 잠시 멈칫했어요.

Q. 오글거려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한인뉴스》 편집장이 되려면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덕목 은 무엇일까요? 월간 잡지의 편집장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잡지 편집자는 글을 쓰고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글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다양한 글을 써내야 합니다. 보도 자료는 물론이고 문장력이 없는 기고는 다시 쓸 정도의 공을 들여야 합니다.(저는 날 것을 좋아합니다만...) 교정, 교열 업무를 포함한 원고 검토라는 읽는 작업과 기획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 관심분야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가



려는 습관이 있어야합니다. 콘텐츠 서비스를 목표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독자, 저자와 다양한 교류를 하고 이야기가 재생산되는 공간을 꾸려야 합니다.

크레디트에 언급되는 영화의 편집자와는 다른 잡지 편집자는 빛나는 직업이 아닌 겸손한 직업입니다. 남을 조명하지 절대 자기 자신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눈과 손과 머리를 저글링하며 계속 굴려야합니다. 아이디어를 발견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합니다.



호기심, 분석력, 창의력, 응용력, 공감능력, 긍정적 사고, 꼼꼼함, 자료 서치 능력, 문장쓰기 능력, 제작에 대한 기본 지식, 디자인능력, 외국어 능력, 자기 확신 등등이 있어야 합니다.

잡지의 컨셉을 유지하는 큰 흐름을 보고 피드백하고, 세심한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고를 내가 속한 주변과 수용의 선을 맞춰야 합니다.

얼마 전 GS 광고 물의를 보면 나이든 세대가 이해 못하고 무지한 세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검토해야 하는 윗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서 실제 제작한 사람은 메시지를 통해 대상이 된 사람들을 조롱하고 싶었고, 그것이 2,30대의 분노를 사서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지요. '근데 그게 그런 뜻이냐?'는 제작한 실무자의 메시지 전달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 상사들의 책임이듯 편집장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Q. 나에게 한인뉴스란?

나에게 한인뉴스는 밀가루 반죽이다.

밀가루 반죽은 이유도 모른 채 어느 날은 용도에 맞게 되거나 질거나 돼듯, 한인뉴스도 100호나 만들었지만 다루기가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나도 동시에 온갖 걱정이 함께 솟아 오릅니다. 매달 뿌듯하고 힘들고 창피합니다.

Q. 홍석영 편집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끝으로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순간 제정신으로 임했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된 만큼 오류도 많이 쌓였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의 그 강철문을 두드리고 여는 일에 힘을 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한인뉴스가 300호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후원을 보내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달 이 인터뷰 코너를 자기만의 색채로 꾸며주시는 이영미 편집위원의 노고에 새삼 감사 드립니다.

아세안의 시간

제목: 아세안의 시간

저자: 박번순(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

출판사 : 지식의날개 출판일 : 2019. 11.

쪽수: 476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국장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아세안에 관한 책을 시리즈로 소개하는 코 너를 마련합니다. 평소에 가지던 의문에 대한 답을 책에서 발췌 하는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편집자 주-

책 소개

아세안 경제는 세계 경제에 어떻게 등장했으며, 오늘날 어떤 강점과 약점을 보이고 있나. 그리고 인구규모 세계 3위에 달하는 아세안 경제의 앞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세안의 시간』은 한국의 시각에서 아세안을 보는 전문적인 지역연구서이다. 박번순 고려대 공공정 책대학 경제통계학부 교수가 1989년에 태국 연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한국과 동남아시아와 주변 지역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아세안의 시간』은 한국 경제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동남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살피고, 동남아시아 경제의 빛만이 아니라 그늘까지 심도 있게 다툼으로써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의 발전과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안내서로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이 책은 아세안의 기초 환경에서부터 자연 자원, 주요 산업과 기업, 동남아 경제에 미친 화교 자본의 영향과 한국보다 앞서 진출한 일본 기업의 현황과 명암, 그리고 오늘날 활화산처럼 폭발 중인 베트남 경제, 아세안공동체의 출범과 미래까지 아세안 경제의 모든 주제를 총망라한다.

박번순 교수는 『아세안의 시간』에서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세안 경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 그동안 거의 다루지 않은 기업, 산업, 그리고 화교 자본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려 했다. 또한 아세안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는 등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세안 경제의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한국과 아세안이 가까워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박번순 교수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새로운 시장과 함께할 친구가 필요하다며, 세계 4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블루오션 아세안,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과 성장모델이 필요한 아세안은 서로에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번순 교수는 한국이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아세안과 가장 유사한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특히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사람중심의 동아시아를 꿈꾸는 아세안의 미래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고 썼다.

책이 답하다

(묻다) 지난 30여 년 간 한국과 동남아의 대외 정치와 경제 환경은 어떻게 변했나

(답하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여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됐다.

일본은 한 때 산업기술력으로 서방 세계를 위협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노쇠한 국가로 전락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해 왔으나 이제 영향력이 감소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통국가로 변화하려는 듯하다.

한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 고소득국에 진입했고 민주화도 이루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세계 유수의 생산국이자 교역국으로 거듭났다. 민주화 이후 창의와 혁신의 기반 위에서 탄생한 대중문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의 감성을 적시고 있다.

(묻다) 동남아에서 다국적 기업은

(답하다) 다국적 기업은 주로 아세안의 제조업을 주도한다. 1960년대부터 진출한 일본 기업이 가장 두드러지지만 P&G. 네슬레. 유니레버 등 소비재 분야에서 유서 깊은 서구기업도 있다.

(묻다) 동남아에서 화교 기업은

(답하다) 아세안에서는 변변한 구멍가게도 다 화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민간기업의 화교 운영 비중이 높고,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대부분은 소수의 화교 가족이 통제한다. 화교기업은 식품, 유통,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 기술이 취약하고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을 지향하고 동남아에 투자를 시작한 다국적 기업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

(묻다) 중국에 대한 동남아 화교의 역할은

(답하다) 동남아 주요국의 화교 자본가들은 중국이 개방할 때 중국에 투자했고, 중국 제조업체들이 동남 아로 진출할 때는 현지 파트너가 되어 동남아 진출을 도왔다.

(묻다) 동남아의 약점과 중국의 역할은

(답하다) 아세안은 취약한 역내 인프라와 국가간 인프라 연계성 부족이 약점인데, 일대일로(BRI)사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통한 막대한 중국의 지원금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묻다) 아세안 사람들이 동북아 사람들에 비해 교육에 덜 적극적인 이유

(답하다) 아세안은 동북아보다 더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부분의 아세안 사람들은 내세를 믿는다. 현실에 대한 순응도가 높고 마음의 안정을 더 깊이 누린다. 그 결과 동북아 국가에 비해서는 교육에 덜 적극적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싱가포르, 방콕, 호찌민 등의 중산층은 교육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농촌지역에서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경시된다.

(묻다)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 상대는

(답하다) 한국기업은 아세안 내구소비재 시장에서 일본기업과 경쟁해야 하고, 경공업 제품 시장에서 중 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며, 서비스 시장에서 현지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세안 호텔산업 분야 는 토착기업의 경쟁력이 높다.



DANAU TOBA (LAKE TOBA, 토바 호수)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서쪽 섬인 수마트라 섬의 북쪽에 있는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거대한 칼데라 호수다. 깊이는 529m에 이르고 크기는 제주도와 비슷하다. 여러 번의 화산 폭발이 있었지만 특히 7만 4천년 전 대폭발은 어마어마한 화산재를 뿜어내며 하늘의 햇빛을 가려 인류에 빙하기를 선사했을 만큼 강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편집자 주

자카르타에서 항공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토바 호수를 가기 위해서는 메단MEDAN을 경유해서 가거나 SILANGIT 실랑잇 국제 공항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실랑잇 공항이 없었을 때는 모두 메단을 통해 여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실랑잇을 통해 토바 여행을 하곤 합니다.

사실 두 경로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보통 일정에 따라 코스를 추천 하는데, 짧은 일정 (2박 3일이내) 일 경우 실랑잇을 통해 가는 걸 추천 드리며 3박4일 이상 4박5일 정도면 메단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을 추천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정 및 코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토바**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선택이 그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토바만을 갈 것인가 아님 그 밖에 브라

스타기BERASTAGI 지역이나 메단까지 같이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함 입니다.

토바 호수를 흑자들은 블랙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잡생각을 흡수해버리고 무념무상으로여행할 수 있는 곳,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호수길을 걷고 걷는 것 만으로 행복한 이 곳, 세계 최대의 칼데라 호수인 토바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토바 호수는 슈퍼급 화 산 폭발로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죠. '칼데라' 라는 게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빠져나간 공간이 함 몰되어 생기는 거라는데 제주도만한 마그마방이 라… 상상이 되십니까? 무슨 SF 영화인 거 같겠지 만 사실입니다. 폭발이 얼마나 어마어마 했을 지 상상만해도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숙연해 집니다.



토바 호수가 내려 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함께 여행했던 손님들과 함께

보통 토바 호수 여행이라 하면 대부분 호수 안에 덩그렇게 떠있는 사모시르Samosir 섬과 그 안에 있는 뚝뚝마을TukTuk 을 관광하는 것이 대부분 인데요, 이게 사실은 코끼리 다리에 붙은 개미 같은 거랍니다. 충청도를 대천 시내 보령시장 하나보고 판단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네요.

실랑잇 공항으로 여행코스를 잡았다면 사모시르로 건너가는 길목인 파라팟으로 이동하기 앞서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부낏 도아 후따 긴장 Bukit Doa Huta Ginjang 전망대를 반드시 들리시는 걸 강추 드립니다.

충청도만한 토바호수를 한눈에 보려면 사실 하늘 로 올라가야 겠지만 지상에서 그 웅장함의 일부라 도 볼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꼭 들려야 겠죠.

토바의 웅장한 전망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두 군데 정도 추천 드릴 수 있는데, 그 중 한군데가 바로이 부낏 도아 후따 긴장입니다.(다른 한 곳은 시말렘 리조트Simalem Resort를 추천합니다.) 혹자는 사모시르 섬에 들어가 무작정 가장 높은 산위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 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차량으로도 원동기로도 그 산정상으로 가기는 녹녹치 않고 그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실랑잇 공항 근처의 날씨가 좋으면 토바 호수의 웅장함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니 꼭들리셔야 겠죠.

여행기간을 4박5일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이곳 말고도 파라팟과 뚝뚝 마을 일정을 지나 좀더 북 부지역(브라스타기)을 통해 메단으로 돌아갈 때 토바 호수 북쪽 끝에 위치한 시말렘 리조트를 방 문하셔도 아름다운 토바의 전경을 만끽하실 수 있 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파라팟에서 도 3시간이상 또 달려야 하다 보니 사실 짧은 일 정으로는 가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 하지는 마세요. 우리에겐 시 말렘 리조트 버금가는 부낏 도아에서의 아름다운 전망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뮤지엄 후탄 볼론 시마닌도의 배우들 (사진 : 김영국)

부낏도아에 들리셨다면 절벽 난간에 위치한 작은 와룽에서 맥주 한 잔도 강추 드립니다.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토바 호수의 전경 그리고 맥주 한잔 정말 행복합니다.

혹 방문을 계획하신다면 꼭 사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천이나 구름이 많이 낀 날 이곳에 오르실 경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포인트 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대형버스는 올라가기 힘들며 최대 2~30인승 중형버스까지는 등정이 가능합니다.

토바 여행에서 사모시르 방문만 계획하신 경우에는 3박4일이나 4박5일정도, 브라스타기나 메단까지 같이 생각한다면 7박8일 정도를 추천 드리지만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2박3일의 짧은 일정으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데요, 이럴 경우 첫 날은 실랑잇을 통해 파라팟에 도착 페리를 타고 사모시르로 들어가 묵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토바에서의 아름다운 2박 3일 '꿀팁'

이번에는 바쁜 분들을 위한 알짜배기 2박3일 일 정에 맞추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2박3일의 짧은 일정으로 토바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숙소를 파라팟 내 호텔에서 묵으시고 반나절관광으로 사모시르로 들어가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짧은 일정이라도 1박은 사모시르 섬 안에서 묵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모시르의 진짜 매력에 빠지실 수 있거든요.

뚝뚝마을이 위치한 사모시르 안에 개인적으로 추천 드리는 리조트는 카롤리나 리조트Carolin 나

토바 빌리지 인Toba in 리조트를 추천합니다. 사모시르 섬 안에는 크고 화려한 리조트는 없지만 가성비 넘치고 편리한 곳을 찾는다면 두 군데 만 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페리에서 리조트로 바로 하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두 리조트는 각 각의 매력이 다른 데 카롤리나는 좀더 외국인 이 많고 토바 인은 좀더 로컬 냄새가 나지만 전 개 인적으로 토바 인이 좀더 좋았습니다. 물론 발품 을 팔면 저렴한 숙박업소들도 많습니다.

토바를 방문하는 최적의 시기는 건기 중에서도 5월~9월이 좋습니다. 우기에는 호수지만 너울이 크고 페리도 많이 낡아 위험하기도 하고 또 우기에는 하늘과 섬과 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전경을 보기 힘드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기보다 더 위험한 시즌이 있다면 르바란이나 특수연휴 시즌입니다. 이 기간에는 관광객이 너무 많다 보니 특히나 페리의 초과 승선으로 매우 위험하니 혹이 기간에 여행하신다면 개인보트를 빌려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 드립니다.

부낏 도아Bukit Doa에서 첫 번째 목적지인 파라 팟Parapat 선착장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메단을 통해 가실 경우 카사바 농장만 주구장창 지나가는 지겨운 4시간이지만 그에 비해 발리게 Balige마을을 지나가는 실랑잇 코스는 훨씬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바 호수를 건너는 페리가 오후 4시반이면 끊기 때문에 부낏 도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점심은 선착장에 도착하셔서 페리시간을 확인하신 후 선착장 Warung 에서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페리는 아름다운 토바 호수를 충분히 감상하시고 느낄 실수 있도록 천천히 움직입니다. 아름다운 토바를 느끼시려면 1층 선실보다는 2층을 추천 드립니다. 사모시르에 도착하셨다면 리조트 내에서 휴식을 취하시거나 리조트 근처에 바구스Bagus 레스토



시알라간 돌 재판소 (사진: 김영국)

랑이나 제니스Jenny.s 레스토랑에서의 석식을 추천 드립니다. 바구스는 좀더 현지인의 맛집이고 제니스Jenny.s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두 군데 모두 또바 호수에서 잡은 민물 생선 바베큐가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식사 후에는 호텔 프론트 데스크를 통하든 아니면 직접 다음날 주변을 둘러볼 오토바이를 예약 하십시오. 오토바이가 안전면에서 걱정이라면 오토바이에 보조차량이 붙은 것들도 있으니 이걸로 예약하시면 주변을 구경하기도 좋고 안전하기도 하면서 동심의 추억을 남기실 수 있답니다. 오토바이 기사들이 사진 포인트도 많이 알고 있어 때때로 훌륭한 사진기사들이 되주기도 하니 1~2만 루피아의 팁과 더불어 친절한 미소는 운전기사를 더 훌륭한 가이드로 변하게 하곤 합니다.

차량 예약을 완료하셨다면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외로 토바 내 밤바람은 서늘하기에 토바에 많은 리조트는 에어컨이 없고 두꺼운 이불이 제공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요관광지를 돌아보려면 시간이 빠듯하겠지만 짬을 내어 호수 길로 이어진마을 길을 걸으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토바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사모시르에는 바탁댄스와 시갈레갈레 공연을 볼수 있는 두 군데의 바탁박물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객을 받기 위해 2011년에 건축된 뚝뚝마을의 바탁박물관이고, 다른 하나는 스몰 바탁박물관이라 불리는 사모시르 북쪽 지역에 위치







밤부하우스에서 토바호수를 바라보며 맥주한잔 (사진 : 김영국)

한 1969년 건립된 뮤지엄 후따 볼론 시마닌도 Museum Huta Bolon Simanindo가 있습니다. 이동 거리는 좀 길지만 좀더 완성도 있고 퀄리티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는 뮤지엄 후따 볼론 시마닌도에서는 공연을 관람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짧지 않은 이동 거리 간에도 마을을 지나며 오리지널 토바인의 삶과 문화를 구경할 수 있으니 지루하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스몰 바탁박물관에 바탁의 전설과 이야기로 이뤄진 공연을 직접 보고 참여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실 겁니다. 이곳에 공연은 오전 10시와 11시에 두 번만 있습니다.

10시 타임에 공연을 관람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암바리타에 시알라간의 돌 재판소를 관광하실수 있습니다.

고대 돌로 만든 의자와 탁자에서 법을 집행하고 중죄인을 참수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암바리 타 마을에는 그 동네의 마을주민들이 가이드를 해 주는 데, 가이드비로 3~5만루피아정도를 지불하 면 암바리타의 역사와 전설 그리고 주거문화에 이 르는 박학다식한 정보들을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암바리타 관광까지 마치셨다면 뚝뚝마을로 돌아 오는 길에 절벽 위에 위치한 밤부하우스의 중식을 강력 추천합니다. 아주 작은 대나무로 만들어진 원두막 같은 식당이지만 정말 최고의 운치를 가진 식당으로 여기서 맥주 한잔 드시며 토바 호수로부 터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시면 정말 행복하답니다. 꼭 한번 들리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단점이 있다면 음식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 명이 가신다면 잽싸게 먼저 주문을 하시는 분이 더욱 여유를 만끽하실 수 있어요. ㅎㅎ)

식사 후 뚝뚝 마을로 돌아오셔서 호텔 체크아웃을 하시고 파라팟Parapat으로 건너가 볼까요. 아마 사모시르에서 하루 더 자고 픈 마음이 간절히 드시겠지만 페리는 날씨의 영향이 크다 보니 2박 3일일정에서는 안전하게 파라팟으로 건너가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우기 파라팟에도 꼭 체험에 봐야할 문화가 있거든요. 파라팟에 넘어가 호텔체크인 후 조금 쉬시다가 파라팟에 삼겹살을 먹어보러 갈까요? 숯불구이 삼겹살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모르셨죠? 저녁 식사로 맥주 한잔에 숯불구이 삼겹살을 먹고 있으면 이슬람과 카톨릭이 공존하는, 마치 라부한바조(플로레스)에 와 있는 것같은 착각이 들 정도 입니다.

파라팟 지역의 호텔로는 가성비가 뛰어난 앗사리 Atsari 또는 니아가라 호텔Niagara Hotel을 추 천드립니다.

자, 저와 함께 토바 여행 어떠셨나요? 사실 2박3 일로는 너무 아쉬운 코스가 토바 입니다. 저 또한 갈 때 마다 그 환상적인 분위기에 취해 제대로 된 사진을 건지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곳 입니다. 토바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되도록이면 조 금 여유를 갖고 떠나 블랙홀 같은 토바의 매력을 모두 느끼고 오시길 바랍니다.



마파함의 **아이**르 당가 왕과 서사시 아르주나쉬와라

라카 해협의 지리적 이점과 중계 무역을 이용하여 번영한 스리위자야 왕국은 7세기부터 14세기까지 존재하였다. 스리위자야 왕국은 당시 불교가 매우 번성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 승려들이 이곳에서 산스크리트어를 익히며 불경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스리위자야라는 이름은 항공 회사의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이 시기 동안 자와 지역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있었을 것이다. 동서로 길게 뻗은 자와 섬은 땅이 비옥하여 농사도 잘 되었고, 향료를 실은 배들이 말루쿠 제도에서 출발하여 말라카 해협까지 가는 바닷길에서 잠시 들러야 하는 주요한 항구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발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록 문화가 아닌 구전 문화가 중심인 인도네시아에는 돌에 새겨진 비문 몇 개 외에는 옛 국가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중국인들이 남긴 기록이 산발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당시 중부 자와의 역사를 완전히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이 당시 자와 지역의 왕국으로는 산자야 왕국, 사일렌드라 왕국, 마따람 왕국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여러 왕국들을 모두 구(舊) 마따람 왕국으로 통합하여 서술하고 있다. 구 마따람 왕국은 족자카르타 주변인 자와 중부에서 시작해서 자와 동부 쪽으로 영향력을 넓혀 나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와 서부는 여전히 스리위자야 왕국의 영향권이었다. 마따람 왕국은 향료 무역의 주도권을 놓고 스리위자야 왕국과 자주 대립하였고 여러 차례 전쟁을 하기도 했다.

마따람 왕조 내부에서는 불교 세력과 힌두교 세력의 갈등이 있었다. *빠낭까란 (Rakai Panangkaran) 왕은 불교를 신봉하여 Candi Kalasan을 비롯하여 여러 불교 사원과 수도원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 왕이 죽자마자 왕족 내에서 힌두교를 신봉하는 세력과 불교를 신봉하는 세력의 종교 갈등이 있었고 결국 힌두교 세력이 통치하는 북부 마따람과 불교 세력이 통치하는 남부마따라으로 분열되었다. 이 분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동맹을 통해 진정되었지만 종교의 차이로 인한 내부 분열은 계속되었다. 보로부두르 사원(Candi Borobudur)과 쁘람바난 사원(Candi Prambanan)이 비슷한 시기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세워졌다는 것도 마따람 왕국의 종교적 헤게모니 다툼과 공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Syailendra Sri Maharaja Dyah Pancapana Rakai Panangkaran라고도 불려서 사일렌드라 왕조를 세운 왕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가루다를 타고 있는 아이르랑가 왕 - Belahan Temple (11세기) 〉 (출처: Wikipedia)

아이르랑가 왕 시기는 스리위자야 왕국과 마따람 왕국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시기였고, 불교와 힌두교도 서로 포용하던 시기였다. 아이르랑가가 왕이 되기 전, 마따람 왕국은 스리위 자야 왕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위기를 맞고 있었다.

아이르랑가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숲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4년 동안 생활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한 사제를 만나 종교(아마 힌두교)에 입문하여 수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

4년 후 그는 힌두교 사제들과 불교 사제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된다. 아마 4년 간의 구도 생활을 통해 종교적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 같 다. 그는 말년에도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시 수도자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아이르랑가는 스리위자야 왕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스리위자야 왕국이 촐라 왕 국과 전쟁을 할 때 스리위자야 왕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였다. 스리위자야 왕국과의 관계 가 안정되자 아이르랑가의 통치 범위는 자와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홍수를 막기 위해 강에 둑 을 쌓아 백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생활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마따람 왕국이 후세에 미친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자와 고전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10세기 말에 마따람을 통치한 다르마왕사 뜨구(Dharmawangsa Teguh) 왕은 힌두교 신봉자로 힌두교의 주요 경전 중의 하나인 <마하바라타>를 자와어로 번역·각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이르랑가(Airlangga) 때는 <아르주나위와하(Arjunawiwaha)> 라는 서사시가 만들어졌는데, 이 서사시는 아직까지도 자와 전통 인형극인 와양의 인기 주제라고 한다.

<아르주나위와하〉는 힌두교 경전 <마하바라타〉의 주인공 중 하나인 아르주나(Arjuna)가 힌두교의 신인 인드라(indra)를 도와 니와따까와짜(Niwatakawaca)라는 빌런을 물리치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주요 주인공들은 <마하바라타〉에서 가져왔지만, 이야기 자체는 깐와(Empu Kanwa)라는 시인이 창작한 것으로, 아이르랑가 왕의 수도자로서의 삶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위와하(wiwaha)가 결혼식 피로연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서사시가 아이르랑가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결혼 대상인 왕비는 수마트라에서 온 공주 혹은 발리에서 온 공주라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p>



(아르주나위와하)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니와따까와짜(Niwatakawaca)라는 악한 왕이 있었다. 그는 매우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수프라바(Supraba)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녀와 결혼하고자 하였지만, 인드라(Indra)는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니와 따까와짜는 매우 화가 나서 인드라가 다스리는 왕국을 공부하겠다고 병고했다. 인드라는 아르주나(Arjuna)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다. 그 때 아르주나는 Indrakila 산에서 종교적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르주나의 영성을 시험하기 위해 수프라바를 포함하여 7명의 아름다운 선녀를 보내 그를 유혹하도록 하였다. 당연히 아르주나는 그 유혹을 잘 변뎌냈다. (전쟁을 치를 영웅을 테스트하는 것 치고는 약간 뜬금없다.)

이 소식을 들은 니와따까와짜는 야생 돼지를 보내 아르주나의 명상을 방해하였다. 참다 못한 아르주나는 화살로 야생 돼지를 맞춰 죽였는데, 가서 보니 다른 누군가의 화살도 야생 돼지에 명중되어 있었다. 그 사람과 누가 야생 돼지를 먼저 맞췄는가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사람이 힌두 신 시바(Siwa)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시바에게 최고의 영성에 도달했다는 극찬과 함께 특별한 화살인 Pasopati를 받게 된다.

니와따까와짜는 매우 뛰어난 주술적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아르주나가 만만히 상대할 적수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르주나와 수프라바는 니와따까와짜의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그의 궁으로 몰래 들어갔고, 수프라바는 그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니와따까와짜를 유혹해 내는 데 성공하고 그의 약점이 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부분은 구약 성서의 삼손과 데릴라와 약간 비슷하다.) 니와따까와짜는 속은 것을 알고 더 화를 내며 인드라의 왕궁을 공격하고 성공을 거두는 듯 했지만 역시 마지막에는 주인공인 아르주나가 니와따까와짜의입을 여는데 성공하여 혀에 Pasopati 화살을 쏘아 맞춤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아르주나는 인드라 왕국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프라바를 비롯한 7명의 선녀들과 결혼할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되고 7개월 동안 인드라 왕국에서즐겁게 지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라라 종그랑〉 한 · 인도네시아 5인 시집 출간

<라라 종그랑>한·인도네시아 5인 시집 출간 'Lara Djonggrang' —Antologi 5 penyair Korea dan Indonesia / 오후시선 10 (역락출판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시인들이 모여 5인 시집 <라라 종그랑>을 도서출판 역락의 오후시선 10 번으로 발간하였다. ('Lara Djonggrang' -Antologi 5 penyair Korea dan Indonesia)

이 시집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현역 시인들이 만나 '인도네시아'라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시집을 엮은 첫 사례로, 국가적 배경이 다른 시인들이실제적인 문학적 교류를 통하여 공동시집을 발간했다는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 시집에는 한국어와인도네시아어로 교차 번역된 총 50편의 시와 인도네시아의 정서와 풍경이 담긴 이국적인 사진이함께 실려있다.

시집 제목에 등장하는 '라라 종그랑'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사랑을 거부한 대가로 돌로 변하여 쁘람바난 사원이 되었다는 고대 자바 뺑깅왕국 공주의 이름으로, 채인숙 시인의 시에서 제목을 가져왔다. 족자카르타 쁘람바난 사원의 시바 신전 북쪽 방에 있는 두르가 여신상이 라라 종그랑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시집에 참여한 5인의 시인들은 국적은 다르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거나 거주했던 현역 시인들로,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의 주도인 반둥에서 열린 문학 모임을 통해 친분을 맺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시를 쓴다는 공통의 정서를 나누며 1년여 동안 실제로 만나 함께 시를 쓰고 번역 작업을 해 나갔다.

시 번역은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 문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노정주 번역가가 동 참하였고, 채인숙 시인과 넨덴 릴리스 아 교수가 각자의 모국어로 번역을 감수하였다. 사진은 인도



네시아 한인 언론사인 '자카르타경제신문' 편 집장인 조현영 작가의 작품이다.

시집을 통해 한국인에게는 아직 멀고 낯선 적도의 섬나라로만 알려진 인도네시아를 시와 사진으로 만나는 낯설고 독특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라라 종그랑> 한 · 인도네시아 5인 시집 ('Lara Djonggrang' — Antologi 5 penyair Korea dan Indonesia)에 참여한 시인은 다음과 같다.

넨덴 릴리스 아 (Nenden Lilis A)

인도네시아 반등 교육대학교에서 문학언어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출간된 윤동주 시집 『바람과 별과 시』, 최 준 시집 『야자수 성자』등의 인도네시아어 번역에 참여하였다.

김길녀 (Kim Gil Nyu)

중학교 때부터 꿈꾸던 문학이론가 대신, 얼떨결에 시인이 되었다. 시집 <푸른 징조>와 여행산문집 < 시인이 만난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라뜨나 엠 로히만 (Ratna M Rochiman)

작가이자 상인인 라트나 엠 로히만 작가는 인도네 시아 여성작가협회 설립자이자 회장이며 반둥문 학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채인숙 (Chae In Sook)

2015년 〈실천문학〉 오장환신인문학상을 받고 등 단하였다. 〈인도네시아 한인사100년〉 수석편집 장, 〈인작〉 편집장, 라디오와 TV다큐멘터리 작가 로 일했다. 1999년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에 거주하며, 인도네시아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

까뜨리나 아마트 (Katherina Achmad)

역사, 문화, 과학에 대한 열망이 작품에 영향을 줬다. 여러 권의 시집과 소설집을 출간하였다.

창조적 긴장감의 공간, 파타힐라 광장

- 혼성적인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으로 문화 예술의 공간이 된 파타힠라 광장 -



박준영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많은 이들에게 자카르타는 '교통체증의 도시'로 기억됩니다. 자카르타의 악명 높은 교통 체증은 관련 선거 때마다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카르타에서는 마천루와 판자촌이 공존하는 현대 도시의 대표적인 문제인 빈부격차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카르타는 '불평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COVID-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자카르타의 도시 일상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자카르타의 활력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에 관심이 많은 친한 친구가 자카르타에 방문한다면 어느 곳을 함께 갈까요? 자카르타의 유명한 쇼핑몰, 모나스 광장, 따만미니, 안쫄 유원지 등과 함께 꼬따 뚜아 지구의 파타힐라 광장이 떠오릅니다. 이국적인 경관으로 자카르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방문하는 파타

많은 이들에게 자카르타는 '교통체증의 도시' 힐라 광장은 언제부터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관광로 기억됩니다. 자카르타의 악명 높은 교통 체증 지가 되었을까요?

16세기 후반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네덜란드는 1602년 동인도회사(VOC)를 인도네시아에 정식설립하며 식민지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후추 등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설립된 VOC는 경영난을 겪으며 네덜란드 정부에 귀속되었고, 1824년부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직할식민지가됩니다. 네덜란드는 이후 제국주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식민지 영토를 확장하며 현재 인도네시아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을 식민통치합니다. 네덜란드는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던 일본이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점령하기 전까지 약 340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배(식민지 경영 포함)했습니다.

자바섬 서북부의 바타비아(현재 자카르타의 일부 지역에 해당)는 VOC가 처음 진출한 지역이자 식민지 행정의 중심 구역이었습니다. 바타비아는 순다 끌라빠 항구로부터 시작하여 남부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당시 시청(현재 자카르타역사박물관)이 위치해 있던 파타힐라 광장(당시 Stadhuisplein, '시청 앞 광장')은 이 시기 식민 경영·행정의 중심지로 통치 기관과 무역 시설이 집중적으로 위치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네덜란드 왕국은 현재 자카르타의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당시 바타비아의 경관 변화를 식민 통치에 활용했습니다. 네덜란드 건축, 도시 설계 양식을 바타비아에 적용하는 등식민 권력을 공간 경관과 건물에 각인했습니다. 파타힐라 광장 주변은 바타비아 식민 행정 기관이 집중적으로 위치했습니다. 한편, 이 공간은 감옥시설과 집단 교화, 공개 처형 등으로 활용된 식민주의 비극이 발생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1942년 일본이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이후 일본은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에 집중하느라 체계적인 식민 통치 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독립 선언과 재침략한 네덜란드에 대항한 4년에 걸친 독립 전쟁(독립 혁명) 이후 이 공간은 한동안 '버려진 공간'과 같이 방치됐습니다. 이 공간이 식민주의 비극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당시 독립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이 공간 방치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파타힐라 광장과 인근 지역은 대중교통 차고지나 불법 상행위가 벌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됐습니다. 1970년대까지 이 공간은 일반인들이 쉽게방문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이 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발견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카르타 지방 정부는 이

공간을 유적지로 지정하여 재생 사업을 시작합니다. 꼬따 뚜아를 문화유산지역(Heritage Site)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보수, 재생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계획만 있을 뿐, 지지부진하던 공간 재생 사업은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됩니다.

꼬따 뚜아의 도시 공간 재생 사업은 파타힐라 광장 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파타힐라 광장과 주변의 건물들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국적인 경관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민 지배 시절 건축된 건물들이 외부의 건물들과비교할 때, 보존 상태가 좋았고, (지방) 정부 소유의 건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shley Robertson, Alisa Sutanudjaja, Andrew Henderson, Maria Inggita Kusalasari(ed)), (2014), Analytical study of Kota Tua, Jakarta.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는 파타힐라 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공간 재생 사업에 대단한 열의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꼬따 뚜아 지구를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시도한 점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타힐라 광장은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접근성 좋은 공공 공간이 부족한 자카르타에서 파타힐라 광장은 여가 생활의 공간이자만남의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타힐라 광장에 가면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를 관람하거나 옛 경관을 간직한 카페, 식당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이나 계획 없이 파타힐라 광장에 방문해도 광장 입구에서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버스킹 공연을 구경하고, 광장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타는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는 실패했지만, 파타힐라 광장은 (지방) 정부가 주도한 공간 재생 사업으로 많은 방문자들이 찾는 자카르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가 주도했지만, 공간 사용자들의 공간 실천이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간 사용자들은 공간 재생 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의도를 대체적으로 수용하는한편,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실천했습니다.

공간 재생 사업 이후 문화·예술의 공간이 된 파 타힐라 광장은 여러 측면에서 공간적 '혼성성 (Hybridity)'이 발견됩니다. 먼저 파타힐라 광 장에서는 '역사적 혼성성'이 발견됩니다. 파타 힐라 광장과 건물의 외관은 건축 당시의 원형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존되는 한편, 내부는 문화·예 술 공간 조성의 목적에 맞춰 변화시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자카르타 역사박물관 (Museum Seiarah Jakarta)입니다. 바타비아 시 청으로 건축된 이 건물은 1710년 현재와 같은 건 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건물 지하 공간 의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도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13년까지 시청으로 사용 되었고 1945년 독립 이후에는 군사 기관으로 활 용되다 1974년 공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자카 르타 역사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파타힐라 광장의 주변 건물들은 식민적 과거와 현재의 문 화 · 예술적 공간 활용이 공간의 내·외부를 분리하 여 활용하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견되는 파타힐라 광장의 혼성성은 '비공식성의 혼성성'입니다. 파타힐라 광장의 공간 재생 사업을 주도한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는이 공간을 보다 '질서정연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걸림들이 된 요소는 파타힐라 광장의 비공식적 상인(

노점상, 버스킹 공연자 등)들이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들을 광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든 지 광장 외부에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파타힐라 광장에서 비 공식적 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행위를 파타힐라 광장의 문화적 요인으로 인식한 공간 방문자들이 이를 소비하며 파타힐라 광장에서는 활발한 비공식적 상업행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타힐라 광장의 변화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의도와 공간 사용자들의 공간 실천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혼성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타힐라 광장에서는 '계층적 혼성성'이 발견됩니다. 파타힐라 광장은 앞서 설명한 대로 접근성이 용이하며 폭넓은 경제적 계층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소비할 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빈부격차가 현대 도시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데, 여러 계층적 배경의 사람들이 한 곳에 어울리는 도시 공공공간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있습니다. 파타힐라 광장에서 분절되어있던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조우하며 자연스러운 교류와 이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타힐라 광장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혼성성은 탈식민주의 이론가 호미 바바(Homi K. Bhabha, 이하 바바)가 주장하는 탈식민 전략이기도 합니다. 바바는 탈식민 전략과 실천에서 이항대립적 식민적 관계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흔히 탈식민 실천은 식민적 폭력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바는 이러한 탈식민 실천에서 이항대립적 구도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식민 권력의 지배자-피지배자 구도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그는 대안적 탈식민 전략으로 혼성성과 이 혼성성이 실현되는 공간인 '제3의 공간' 개념을 제안합니다. 그에 따르면 식민적 자체가 혼성적입니다. 식민 권력은 흔히 고정된 식민지 지리와 식민지인을 상상합니다. 식민 권력은 피식민인들을 그들의 정형화된 틀에 맞추고 싶어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틀에 꼭 맞아보이던 피식민인들이다른 순간에는 맞아보이지 않습니다. 영국 식민지배 시기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인 인도인들이 '피와 살을 먹는'성찬에는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바바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식민지의 혼성적 상황으로 인해 식민 권력은 불안을 느낍니다. 식민 권력에게 피식민인들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이자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양가적' 대상이 됩니다. 바바는 이러한 불안을 그대로 두거나 증폭시키는 방식의 탈식민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혼성성은 정형화된 식민적 상황을 상상하는 식민 권력의 욕망에 균열을 내고 궁극적으로 식민주의가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비록 인도네시아는 제도적으로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났지만, 내부에 남아있는 신(新)식민주의로 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는 제도적 식민주의를 경험한 국가와 사회가 보편 적으로 직면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 타힐라 광장에서 관찰되는 혼성성은 공간적 정형 화를 허물는 탈식민주의 공간적 실천의 한 방식 을 보여줍니다. 파타힐라 광장의 혼성성은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긴장감은 탈식민 저항의 에 너지로도 활용되면서 동시에 파타힐라 광장의 문화·예술적 요소를 증폭시키는 창조적 긴장감으로도 활용됩니다.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변화한 파타힐라 광장의 공간적 매력을 경험한 한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을 떠올리며 두 실천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식민주의 공간을 '상처'로만인식하여 없앤다든지(조선총독부 철거 등), 식민적 피해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여 전시하는(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소녀상' 등)탈식민주의 실천에서 식민 권력이 의도한 이항대립적 구도가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봅니다. 바바에따르면이러한 방식의탈식민주의 실천은 식민적이항대립 관계의 고착화나 역전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파타힐라 광장의 혼성성이 만들어 낸 창조적 긴장감을 보며 한국에서도 보다 다양한 방식의탈식민주의(공간적)실천을 상상해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Bhabha, Homi K.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12) Moore-Gilbert, B. J.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2003)

소병국 『동남아시아사』 책과 함께 (2020)

'발리'에서 한 달 살기

강희중 / 제4회 적도문학상 수상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hjk.art@gmail.com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행사나 모임 이 취소되어 각자의 시간을 갖는 분위기가 되었 다. 이 기회에 뜻있는 지인과 둘이서 발리에서 한 달 살기를 추진하였다. 나는 20여년간 모아온 골 동품들로 발리에 갤러리를 열고 싶었고 자카르타 윈드오케스트라 백단장은 발리에 음악학교를 열 고 싶어 함께 대지나 건물들을 살피기 위하여 한 달 간 발리생활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동은 차 량으로 하고 식사는 직접 요리해서 먹기로 하여 쿠쿠 밥솥과 가스렌지 등 모든 살림장비를 준비 하였다. 쌀과 부식 등은 아이스박스에 넣고 수시 로 얼음을 보충해 주었다. 운전은 교대하기로 하 고 안전을 위하여 하루에 6시간만 이동하기로 하 였다. 주로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오후 3시경 목 적지에 도착 후 휴식과 식사를 하였다. 운전은 교 대로 백단장이 2시간, 나는 1시간을 운전하기로 했다. 발리에 도착하기 전 솔로에서 1박을 하고, 쁘로볼링고 바닷가에서 1박을 하고, 페리호에 차 를 싣고 발리 북쪽의 '먼장안'으로 가서 1박을 하였다. 거기에는 온천과 바다가 함께 있어 '힐 링' 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장소였다. 사누르에 있는 수영장이 큰 풀빌라로 향했다. 코로나로 해 외 관광객이 입국하지 못하는 관계로 평소의 반 값에 머물 수 있어 행운이었다. 여행은 항상 새로 움을 느끼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인생사의 중요 한 여정이다.

발리에서의 시간은 아침 7시에 밥을 먹고, 오전에는 수영을 하고 악기연습을 하였다. 나는 색소폰을 백단장은 트럼펫을 불면서 독주와 합주로 환상의 화음이 되었다. 오후에는 책읽기와 휴식을 즐겼다. 이틀에 한 번씩은 발리의 여러 지인들이 소개하는 적당한 땅을 찾아 나섰다. 식사는 매일 밥과 국을 끓이기로 하고 담당은 백단장이 맡기로하였다. 나는 고조할아버지가 "가선대부"라는 직책의 양반집 자손이고, 그중에도 종손의 장남이라 예부터 할머니께서 절대로 부엌에는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하셔서 밥이나 음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설거지도 할 줄 모른다고 하니백단장은 투덜거리며 혼자서 도맡아 했다.

내가 감독을 하며 잔소리를 하면 내일부터는 밥을 안한다고 투정을 부린다. 그런 날은 미안해서 외식을 했다. 한국음식, 인니 음식, 중국음식, 일본음식 등, 다양하게 하였다. 발리의 돼지갈비와 랍스터 바소는 특별한 음식이었다. 함께 살다보니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아침식사 후 매일 커피와 사과를 후식으로 즐겼다. 백단장은 과수원집아들이라고 사과 예찬론자이다. 아침의 사과는 영양소, 밤의 사과는 독성이란다. 그리고 사과는 껍질채 먹어야 영양소가 풍부하단다. 나는 사과를깨끗이 씻어 농약 성분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니,깨끗이 씻었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포크로 사과 한점을 찍어서 나에게 먼저 주는데 아뿔사! 거기에

사과산지 표시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나는 여 지없이 이게 잘 씻은거냐고 핀잔을 주었다. 하루 는 한국서 가져온 막걸리 분말로 막걸리를 담았다 고 자랑을 하였다. 24시간 숙성 후 잘 되었을 거라 고 맛을 보라고 한다. 조금 마셔보니 막걸리 맛은 전혀 나지 않고 쉰 것 같았다. 설명서대로 제대로 했냐고 하니 내가 바보냐고 역정을 낸다. 집을 소 개한 지인에게도 막걸리 분말 하나를 주었는데 역 시 그 집에도 막걸리 맛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 나 는 포장해온 막걸리 분말의 봉투를 찾았다. 그런 데 거기서 효소가 나왔다. 효소를 넣어야 발효가 되면서 막걸리가 완성되는데 그것을 빼먹은 것이 다. 나는 백단장에게 라면을 끓이면서 스프를 빼 고 맛있다고 먹어보라면 어쩌냐고 또다시 핀잔을 주었다. 그럴때면 백단장은 코믹하게 "조용히 하 세요"를 연발하였다.

발리에 외국 관광객이 끊기자 한국 사람들이 운영 하는 여행사, 빌라임대, 식당, 선물가게 등, 대부 분 문을 닫아 안타까웠다. 일반 쇼핑상점들도 80 퍼센트는 문들 닫아 발리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 다. 그 덕에 어디를 다녀도 차가 밀리지 않고 조용 해서 좋기는 했다. 우리는 발리에서 편하게 지내 며 저녁식사 후에는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색다른 맛도 느꼈다. 어릴 때 개울가에서 옷 벗고 놀았던 시절이 생각났다. 매일매일 시간은 왜 그리 빨리 가는지 세월을 잡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건강을 생각하며 밥은 고급 흰쌀에 현미찹쌀과 빨간 쌀을 섞고 반드시 검은 콩도 넣었다. 백단장의 지론은 밥만 맛이 있으면 반찬은 적어도 된다고 밥만을 즐긴다. 그러나 나는 반대다. 밥은 적게 먹고 반찬 을 골고루 먹는다. 매일 국도 미역국, 청국장, 된 장찌개, 김치찌개, 오뎅국 등을 끓이고, 반찬은 배 추김치, 부추김치, 마늘 짱아찌, 깻잎, 콩자반, 감 자볶음, 계란 등 고르게 먹고, 가끔은 카레라이스, 짜장으로 밥을 비벼 먹기도 하고 김밥, 라면과 쌀 국수 등으로 간식을 곁들이니 외식을 거의 할 필 요는 없었다.





한번은 발리 수산시장에 가서 랍스터와 갑오징어 등을 사와 발리 지인들을 초청해 저녁 대접도 하 였다. 발리에서 한국 분들의 풍습은 집집마다 음 식을 한가지 씩 해오는데 외식보다도 훨씬 좋았 다. 특히나 돼지갈비찜이나 잡채는 맛이 일품이었 다. 한국 목사님의 소개로 발리 북부의 싱아라자 지역의 고아원을 방문하여 색소폰과 트럼펫 연주 를 해주었다. 그들은 이런 악기들을 처음 보았으 며 연주소리도 처음 들어 모두들 기뻐하고 한 곡 씩 끝날 때 마다 박수도 크게 쳐 주었다. 참 보람 된 시간이었다. 고아원에 간다고 하니 자카르타에 계시는 뜻있는 분들도 후원을 해 주셔 훈훈한 정 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 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은 평소의 따뜻한 마음 이 없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분들께 감 사드린다. 한국의 '본죽' 팀이 발리에 출장을 와서 함께 가본 장애인 마을에서는 그들을 보는 내내 가슴에 눈물을 맺히게 하였다. 태어나면서 부터 장애인으로 일어서지도 못하며 20살 가까이 된 사람도 있고, 세자매가 모두 장애인인 사람도 있어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며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도 얼마나 큰 헌신일까를 생각하 니 가슴이 찢어졌다. 쌀과 부식과 초코파이 등을 선물하니 너무 고마워했다. 발리에서의 한 달 생 활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발리가 폐허가 된 풍경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의 생활에는 끊임없는 저축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를 항상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올때는 카와이젠 화산에 들릴까 했으나 우기로 출입이 통제되어 브로모 화산으로 향했다. 해발 약2,700미터에 호텔과 게스트 하우스등이 즐비하였으나 한산했다. 높은 곳인 만큼 밤엔 정말 추웠다. 창조주가 만든 대자연의 신비함과 웅장함은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신비의 화산이었다.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다. 이후 족자에서 2박, 반 등에서 1박 후 자카르타로 돌아왔다. 살아오면서 평생 처음 한 달 간의 여행을 경험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감동이 새롭고 뿌듯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나라도 크고, 볼 것도 너무 많은 곳이다. 지역마다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주택 모습이나 의복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정말 다양성 속의 하나가 된 나라이다. "백 단장!그 동안 수고했고, 고마웠어. 미래에 발리로 이주하여 빅 밴드를 만들고, 논두렁 음악학교도 만든다고 하니 부디 성공하기를 기원하겠네. 나도 빨리 합류해 성심껏 지원하겠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우리의 발리생활이여! 파이팅!"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현재 2021. 5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1	"발리한인회 [1361-472 1735]"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1001 472 1705]	총무/영사협력원	이 태 우	0812-3793-9452
		영사협력원	김 갑 수	0811-3945-52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2	"반둥한인회 [022) 200-2154]"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022/ 200 2104]	사무차장	윤 병 렬	0811-210-4622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_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4	포고드만인의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5	메근단한회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0	구까구미단단회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7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 ,	[031) 568-8690]"	사무국장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회장	채 환	0822-2021-5725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수석부회장	김 화 룡	0816-8076-681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수석총무	이 승 현	0811-9780-28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회장	김 신	0812-2991-588
10	즈파라한인회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반뜬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0821-8166-6137]"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3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회장	정 성 화	0821-5497-9998
14	칼리만탄 한인회	수석부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배 성 운	0813-7180-6330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세요!



2021 지스 졸업생 대표 연설

최재원 (JIS 12. 학생기자)



안녕하세요. JIS 졸업생을 대표하여 오늘의 저희들을 있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지원 을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필 요로 하는 삶의 정서적 지원과 영감 을 주시고 삶의 인도자 역할을 해 주 신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 자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침내 졸업을 하고 인생에서 한 발 더 나아 갈 수 있는 날을 함께 축하할 수 있다 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저에게 지난 4 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입학 첫날은 여전히 어제 같습니다. 교실을 못 찾아 수업에 늦었던 일, 또 신입생 오두막을 찾아 헤맸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 번째 찔란닥게임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유엔데이의 만국기 펄럭이던 그날, 캐나다 부스에서 먹었던 메이플 시럽 빙수가 그리워지네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이 지나고 여기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끝냈습니다. 9 학년 때 세계 여러 나라로 갔던 수학여행의 흥분과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IASAS (국제) 배드민턴 결승전에서 미친 듯이 'Naga! Naga! Naga Dragon! 구호를 외치며 승리를 응원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무엇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친구들과 오두막에 나란히 누워 빗소리와 어우러진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뗌뻬 크래커를 나누어 먹던 그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10년 아니 50년이 지나도 이 귀중한 추억과 미소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며 가방을 싸고 전 세계로 흩어져 새롭게 펼쳐질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는 미래의 스티븐 호킹, 일론 머스크, 버락 오바마 그리고 고든 램지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꿈꾸는 삶의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은 아무리 성공을 위해 달리더라도 하루하루,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잊지 말고 성공의 무게에 눌리지 않도록 합시다.

Walt Wittman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행복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 어젯밤 구글에서 후다닥 검색한 시의 한 구절입니다.

승진 후 행복할 거라고 혹은 부자가 된 후 행복해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명성을 얻은 후 행복해질 거라 미루기보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언을 할 만한 인생 경험이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모두처럼 더 큰 세상에 이제 발을 막 들여 놏을 19 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몇 달 전에 보았던 미적분 수학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를 기 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에 메여 끊임없이 두려워하 고 걱정한다면 삶의 기쁨은 언제나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작 은 것들에 시선을 주지 않는다면 삶의 기쁨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지금까지 저는 가렵고 성가 신 이 마스크 없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라고 생각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수님의 칭찬, 친구들과 함께 먹는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 샤워를 하며 흥얼거리는 노래, 공원을 산책할 때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서로 안아줄 때 전달되는 따스한 마음 등 주어진 매 순간 단순히 행복하고, 우리가 살아 있으며,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지금은 전례 없는 끔찍한 일들이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세 상 어느 곳에서 삶의 다음 장을 시작할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대학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라면 끓이는 법도 모르고, 엄마만 알고 있는 서랍장 한구 석의 잃어버린 티셔츠 찾는 방법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까지 힘차게 달려와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고등학교를 잘 마쳤듯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것으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어느 것도 당신의 꿈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Dragon 여러분, 사랑합니다!

졸업생대표 최재원





개정 근로기준법(6)

(전호에서 계속)

8.5.7. 적자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폐업 시 8.5.7.1. 위 "8.4.2.항' 퇴직금의 100% 8.5.7.2. 위 "8.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8.5.7.3.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5.8. 불가항력 이유 폐업 시

8.5.8.1. 위 "8.4.2.항 '퇴직금의 50% 8.5.8.2. 위 "8.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8.5.8.3.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5.9. 불가항력 이유 폐업하지 않고 해고 시 8.5.9,1. 위 "8.4.2.항 '퇴직금의 75% 8.5.9.2. 위 "8.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8.5.9.3.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5.10. 적자로 인한 법원의 채무 지불 의무 연기 선고 (PKPU) 판결 해고 시

8.5.10.1. 위 "8.4.2.항 '퇴직금의 50% 8.5.10.2. 위 "8.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8.5.10.3. 위 "8.4.4.항" 권리 배상금 100%

*채무 지불 의무 연기 선고(Putusan 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 채무 자의 채무 지불 의무를 일정한 기간 연기시켜주는 상업법원의 판결

8.5.11.적자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법원의 채무지불의무 연기선고

(PKPU) 판결 해고 시

8.5.11.1. 위 "8.4.2.항 '퇴직금의 100% 8.5.11.2. 위 "8.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8.5.11.3.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5.12. 법원의 파산선고(Putusan Pernyataan Pailit) 판결 해고 시

8.5.12.1. 위 "8.4.2.항 '퇴직금의 50% 8.5.12.2. 위 "8.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8.5.12.3.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5.13. 사용자의 불법행위 시 고용관계 종결 사용자의 폭행, 심한 모욕 또는 협박 시, 불법행위 요구 혹은 권유 시, 3개월 연속 임금을 제 일자에 지불하지 않고 늦게 지불 시, 근로자에게 약속한 의무사항 불이행 시, 고용계약 이외 작업 수행 명 령 시 혹은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생 명과 안전과 윤리를 위협하는 일 수행 명령 시 고 용관계 종결

8.5.13.1. 위 "8.4.2.항" 퇴직금의 100% 8.5.13.2 위 "8.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8.5.13.3.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5.14. 노동법원에서 위 "8.5.13.항" 사유에 대하여 무죄 판결 시

8.5.14.1.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5.14.2.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 에 약정한 송별금

8.5.15. 증빙서를 첨부한 정당한 서면 결근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5일 간 무단결근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2회 호출한 경우 해고 시 8.5.15.1.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5.15.2.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송별금

8.5.16.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1차, 2차 및 3차 경고장 발부 후 해고 시

8.5.16.1 위 "8.4.2.항" 퇴직금의 50% 8.5.16.2. 위 "8.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8.5.16.3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5.17.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심한 위반으로 해고 시(*해고 사전 통보 의무 무) 8.5.17.1.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5.17.2.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 에 약정한 송별금

8.5.18. 형사 사건으로 근로자 구속 시 임금 지불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 구속일로부터 최장 6개월 동안 부양가족에게 생계비 지원의무가 있다.

8.5.18.1.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 임금의 25% 8.5.18.2.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 임금의 35% 8.5.18.3.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 임금의 45% 8.5.18.4.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 임금의 50% 8.5.18.5. 위 6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 "8.4.3.항" 장기 근속금의 100%와 위 "8.4.4.항" 권리배상금의 100%를 배상해야 한다.

8.5.19. 근로자가 질병 혹은 업무상 부상으로 근 무 불가 1년 후 해고 혹은 사직 시

8.5.19.1. 위 "8.4.2.항" 퇴직금의 200% 8.5.19.2 위 "8.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8.5.19.3.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5.20. 근로자 정년퇴직 시

8.5.20.1. 위 "8.4.2.항" 퇴직금의 175%

8.5.20.2. 위 "8.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8.5.20.3.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5.21. 근로자 사망 시

8.5.21.1. 위 "8.4.2.항" 퇴직금의 200%

8.5.21.2. 위 "8.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8.5.21.3.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5.22. 근로자 정년퇴직보험 부보 시 보험금에서 해고금, 장기근속금 및 송별금을 정산할 수 있다 (*시행에 관하여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 계약서에 약정 필요).

"예"

8.5.22.1. 퇴직금 총액: Rp.15,000,000,-

8.5.22.2. 정년 퇴직 보험료: Rp.10,000,000.-

8.5.22.3. 보험료 사용자 부담 60%, 근로자 부담 40%

8.5.22.4.사용자부담액:60% x Rp.10,000,000.-

= Rp.6,000,000.-

8.5.22.5. 근로자 부담액: 40% x Rp.10,000,000.-

= Rp.4,000,000.-

8.5.22.6. 사용자가 추기로 지불해야 하는 액: Rp.15,000,000.-Rp.6,000,000. =Rp.9,000,000.-8.5.22.7. 근로자가 받는 금액

8.5.22.7.1.: 정년퇴직 보험금: Rp.6,000,000.-8.5.22.7.2.:근로자가지불한보험금: Rp.4,000,000.-8.5.22.7.3.:사용자부담해고금: Rp.9,000,000.-8.5.22.7.4.:근로자가받은총액: Rp.19,000,000.-

8.6. 자진 사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근로자가 사직 최소 30일 전 사직서 제출하거나, 의무 근무자가 아닌 자이거나, 사직일까지 정상으 로 직무 수행 하고 사직 시

8.6.1. 위 "8.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8.6.2.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송별금

8.7. 영세사업자 및 소사업자의 퇴직금, 장기근속 금, 권리배상금/송별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영세사업자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자산 최고 Rp.5천만에 년간 매출 최고 Rp.3억 개인 혹은 단체사업자

*소사업자: 직원 최고 50명에,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자산 최고 Rp.2억에, 년간 매출 최고 Rp.10억개인 혹은 단체 사업자

8.8. 형사처벌 조항: 행정처벌로 변경되다.

8.9. 기존 기한부 고용계약서 : 만기 시까지 계속 유효하다.

8.10. 기존 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에 대한 퇴직 금 기산일

기존 기한부고용계약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11호 발효일인 2020년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호에 계속)







1889년 탈고된 『서유견문』의 초고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유견문』, '서양'을 번역해 '근대'와 소통하다

1883년 11월, '보빙사(報聘使)'의 일원으로 미국 땅을 밟은 28살의 조선 청년이 '벽안(碧眼)의 스승'을 찾아 메사추세츠의 작은 마을 세일럼(Salem)으로 향했다.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갖추어 입은 그는 미국의 석학 에드워드 모스(Edward Morse)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조선 최초의 미국 유학생으로 기록된 이 청년은 『서유년문』의 저자 유길준이다. 미국의 눈부신 발전을 확인한 유길준은 '오랑 레'로 여뒀던 바로 그곳에 남아 서양이 이룩한 근대 문명을 탐사하게 된 것이다. 『서유년문』이라는 기념비적 저술은 역전되어 버린 문명의 위상에 관한 2년여 의 탐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기록한 '서양'의 모든 것

『서유견문』은 근대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집 대성한 저작으로서 '개화(開化)'와 '반개(半 開)'및 '미개(未開)'로 위계화된 문명의 피라 미드 속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동시대 의 서양을 71개 항목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정치체제의 구분과 정당의 조직, 조세와 화폐제도, 군대와 경찰, 교육과 학문, 종교와 의식주에 이르 기까지. 『서유견문』이 기록해 놓은 '서양'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백과사전을 방불케 한다.

'서양'을 소개한 동시대의 저작 가운데 정치 와 경제, 천문과 지리, 역사와 과학을 망라한 텍스 트는 『서유견문』이 유일하다. 『서유견문』에 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뿐만 아니라 블루멘바 흐(Johann Blumenbach)의 인종론과 지진에 관 한 지질학자 다나(James Dana)의 학설, 그리고 '천하의 명장(名將)' 몰트케 (Helmuth Moltke) 의 일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교차되어 있다.



서양식 복장을 한 유길준 ©The Peabody Essex Museum

하지만 『서유견문』은 바로 그 백과사전적 특징 때문에 완독이 어려운 저술로 손꼽힌다. 흥미진진한 여행기를 떠올리며『서유견문』을 펼쳐 든 독자라면 유길준의 '여행'에 당 황할 수 밖에 없다. '서양을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다'는 책의 이름과는 달리 『서유견문』에는 여행의 일정이 나타나지않을 뿐만 아니라 견문의 주체인 1인칭 화자조 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최초의 서양 견문록으로 회자되어온 『서유견문』에서 정작 견문 기록을 찾기 어렵다는 아이러니는 미국 이외의 서양을 여행할 수 없었던 유길준의 제한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다. 유길준은 갑신정변으로 미국 유학이 중단되자 귀국길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을 여 행하며 근대 문명의 정수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세계 지도 위에 복잡하게 표시된 그의 귀국 여정은 유길준이 경험한 '서양'의 크기를 보여주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유길준은 일본으로 향하는 증기선을 타기 위해 잠시 런던에 머물렀을 뿐 유럽 대륙에 발을 내딛지 못했다. 유길준이 경험한 '서양'은 사실상 미국뿐이었다.

'번역'을 통한 근대 지식의 수용

그렇다면 『서유견문』이 보여준 방대한 지식의 세계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유길준이 자신도 가보지 못한 서양 여러 나라의 문물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번역'의 힘이다. 총 20편으로 구성된 『서유견문』 가운데, 서론에 해당하는 1편과 2편은 자신이유학했던 덤머 아카데미(Dummer Academy)의 지리교과서 An Elementary Treatise on Physical Geography를 번역한 것이다. 또한 3~18편의 절반가량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西洋事情)』을 참고하였고 마지막 19~20편 역시 『만국명소도회(萬國名所圖繪)』라는 일본의 여행안내책자를 발췌한 내용이다. 향후 유길준이 참고했던 문헌 자료들이 온전히 밝혀진다면 『서유견문』에서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서유견문』이 번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책의 독창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근대 지식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변환이 아닌 번역자의 의도와 사상이 개입된 새로운 창작에 가깝다. 수많은 참고문헌 가운데 누구의 책을 선택해 어떠한 내용을 번역할지, 혹은 어떠한 내용을 번역에서 제외할지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번역자의 몫이기때문이다. 더구나 참고문헌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와 오역(誤譯)까지 고려한다면 '번역'은 원작자가 아닌 번역자의 사상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유길준의 번역에는 다수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인도차이나'를 가리키는 'Farther India'를 '인도'라고 생각했고 '나일(Nile) 강'을 모로코의 강으로 소개했으며 이탈리아의 '포(Po) 강'은 스페인의 강이라고 오역했다. 전 지구를 망라한 근대지리학의 방대한 지식을 서양의 언어로 학습한다는 것은 그만큼 험난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유길준은 오역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읽었던 지리서 가운데 진입장벽이 가장 높았던 덤머 아카데미의 교과서를 참고문헌으로 선택했다. 그가 미국의 교과서를 번역한 까닭은 자신이 학습한 최신의 지리학을 통해 세계의 팽창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유길준은 이름조차 생소한 지구상의 수많은 산과 강을 소개함으로써 동아시아 바깥에 더 큰 세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려던 것이다.



유길준이 번역한 덤머 아카데미의 지리교과서 An Elementary Treatise on Physical Geography ©Hathi Trust (www.hathitrust.org)



『서유견문』 에서 정치 관련 항목의 주요 참고문헌 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



『서유견문』의 또 다른 참고문헌 『만국명소도회』

낯선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곤 한다. 유길준 역 시 미국을 경험한 최초의 관찰자로서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의 드넓은 평원 을 질주하였고 고층빌딩이 즐비한 뉴욕의 거리를 거닐었다. 그에겐 『서유견문』은 아닐 지라도 『미유견문(美遊見聞)』을 남길 정도의 경험적 자산은 충분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보고 들은 것만으로는 '서양'이라는 더 넓은 세계를 알 수 없으며, '견문록'이라는 관 찰기록 역시 서양의 실체를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서양이 아시아에 비해 백 배나 부강한 이유를 찾으려던 그에게 견문록은 적절한 글쓰기의 방식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가 전달하려던 것은 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체계적인 지식이었고 유 길준은 '번역'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다.

글, 사진. 서명일(고려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2021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2021.1.28. ~ 5.28.

				711 201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명예고문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5,000	
3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4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5	고문	최덕열	PT. SHINTA WOOSUNG	5,000	2020
6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7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10,000	2020-2021
8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9	부회장	승범수	PT. KORINDO GROUP	5,000	
10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11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12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13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14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15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16	자문위원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1,000	
17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18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19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1,000	
20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1,000	
21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1,000	
22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23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24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25	이사	길병완	PT. DAEYONG DUNIA SUBUR	1,000	
26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27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 WOORI TOUR	1,000	2020
28	이사	김인기	PT. INDOCORE PERKASA	1,000	
29	이사	김일태	PT. OROM	1,000	
30	이사	김종화	PT. ART MOLD INDONESIA	1,000	
31	이사	김종희	PT. YOUNG JIN INDONESIA	1,000	2020
32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33	이사	김희중	PT. JKI CONSULTING	1,000	
34	이사	노태진	PT. SILLA ENGINEERING INDONESIA	1,000	
35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36	이사	백인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37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38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2,000	2020-2021
39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40	이사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1,000	
41	이사	유용선	PT. DAE HWA INDONESIA	1,000	
42	이사	이강현	PT. HYUNDAI MOTOR MANUFACTURING IND.	1,000	2020
43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44	이사	이완주	PT. PERTIWI INDO MAS	1,000	
				·	
45	아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1,000	2020-2021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47	이사	장영관	PT. SURYA MOLD TECH	1,000	
48	이사	정제의	PT. SINERGI SUKSES INDONESIA	1,000	2020
49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50		no name		1,000	

2021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정금 납부 명단 *기준: 납입일순

번 호	성 명	금액 (IDR)	납입 연도
1	이국청	300,000	
2	정민수	300,000	
3	김재정	300,000	
4	최상직	600,000	'21–'22
5	김성진	300,000	
6	송판원	300,000	2020
7	최석일	300,000	
8	김주형	1,000,000	
9	강희중	300,000	
10	고영철	300,000	
11	백형균	300,000	
12	최임선	300,000	
13	송광종	300,000	
14	이정휴	300,000	
15	최덕열	600,000	'20–'21
16	이준호	300,000	
17	이완호	300,000	
18	이주연	300,000	
19	이균진	300,000	
20	이소임	300,000	
21	김봉수	300,000	
22	안창섭	300,000	
23	장수봉	300,000	2020
24	최성현	300,000	
25	이순형	300,000	
26	김경우	300,000	
27	양석모	300,000	
28	최민	300,000	
29	최상직	1,400,000	기부금
30	박영곤	300,000	
31	김슬기	300,000	
32	한미혜	300,000	
33	이은진	300,000	
34	김재구	300,000	
35	조용완	300,000	
36	홍석영	300,000	
37	채만용	300,000	
38	구종율	300,000	
39	황성현	300,000	

2	T	JYE	ויו סכ) H
	번 호	성 명	금액 (IDR)	납입 연도
	40	정연오	300,000	
	41	정진주	300,000	
	42	김노식	300,000	
	43	임성국	300,000	
	44	이경복	300,000	
	45	권구학	300,000	
	46	김주열	300,000	
	47	박정은	300,000	
	48	대구경북 자카르타 사무소	2,000,000	기부금
	49	박혜윤	300,000	
	50	김병효	300,000	
	51	강호성	600,000	'20–'21
	52	김영율	300,000	
	53	조용재	300,000	
	54	김창근	300,000	
	55	김대근	300,000	
	56	김혜진	300,000	
	57	최인실	300,000	
	58	김일태	300,000	
	59	이정규	600,000	'21–'22
	60	조규철	300,000	
	61	하재수	300,000	
	62	김요셉	300,000	
	63	공상용	300,000	
	64	엄정호	300,000	
	65	김우진	300,000	
	66	길병완	300,000	
	67	김희중	300,000	
	68	김호권	300,000	
	69	김소웅	300,000	
	70	no name	300,000	
	71	유용선	300,000	
	72	양시완	300,000	
	73	김경곤	300,000	
	74	정제의	300,000	2020
	75	김영만	300,000	
	76	석웅치	300,000	

C	י ב	፠기군·E	9625
번 호	성 명	금액 (IDR)	납입 연도
77	박성대	300,000	
78	강선학	300,000	
79	서영률	300,000	
80	김종화	300,000	
81	박재현	300,000	
82	진상요	300,000	
83	송판원	300,000	
84	정용완	300,000	
85	오세명	300,000	
86	승범수	300,000	
87	양태화	300,000	
88	최성현	300,000	
89	이한주	300,000	2020
90	이완주	300,000	
91	이상일	300,000	
92	김인기	300,000	
93	노태진	300,000	
94	승은호	300,000	
95	이한주	300,000	
96	최상직	3,788,000	기부금
97	이종현	300,000	
98	김종희	300,000	2020
99	양영연	600,000	
100	이종남	300,000	
101	이송용	300,000	
102	이현용	300,000	
103	염진구	300,000	
104	정순	300,000	
105	박주상	300,000	
106	장영관	300,000	
107	백인현	300,000	
108	최상직	1,000,000	기부금
109	NONAME	300,000	
110	강윤석	300,000	
111	서정현	300,000	
112	정창섭	300,000	
113	박건우	300,000	
114	공성일	300,000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 유치원

시나르마스 Thamrin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750 0739 리틀램스쿨(자카르타)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2993 7234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세무상당은 택스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당 환영

•주요업무•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 골프교습

TAKARA

SENTUL HIGHLAND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8796 0266 599 122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	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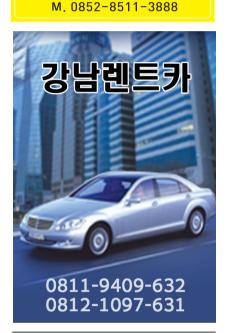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복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 테 리 어 익 스 테 리 어 경 관 쪼 명 간 판

- 디마인/설계/제짝/이공 -Tel, 021-7919-2426



오롬컨설팅 PT.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021) 4585 4911 (021) 4585 4207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아무에도 몇 번역 나를 늘어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說과 藏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Since 1994
Consulting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I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대학교

11 1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군)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	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가구

죠지언 퍼니져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0811 846 174나무플라워0812 1314 2681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란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당)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	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쟈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	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١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ı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ı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ı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ı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ı	끌라빠가딩점	2245	8015
ı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ı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ı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ı	08	15 1004	2004
ı	RS. BUNDA	322	0005
ı	RS. GRAHA MEDIKA	530	0887
l	RS. MEDISTRA	521	0200
8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ı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ı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ı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11-1-1				
뉴서울슈퍼		7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	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	321	8705
무궁화 본점		7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	723	3214
무궁화 뽄독인다점		75	590	5488
무궁화 끌라빠가딩점		4	1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	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	- [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	-76	340	4783
무궁화 반둥점	022-	-82	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	-8	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	1-2	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	-4	1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	1-8	3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	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	3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	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	292	9591
무궁화 바땀점	0812	6	664	8989
무궁화 BSD점	08	11	94	4338
우리슈퍼(버까시)		82	40	4575
월드마트		84	130	2535
하나마트		84	159	0064
한일마트		7	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	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	459	9858
K-마트		22	277	5526
KOREA MART(수라바이) O(31	734	398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효(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라 5793 9211 마꾸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1 255
대가야		5511
명가면옥		2745
산들		5821
상하이		5550
산해진미		8182
서울일식		0840
아리수	0254-781	
알리사	0254-60	
오리랑장어랑		6457
우리들		4047
포터를 조선민물장어		3308
조건건물 등이 종가레스토랑	551	
청기와 청기와	0858 1377	
성기와 체어맨		8585
· · · =		
태능갈비		0888
테라스 가든		9321
한마당		6770
산정 까라와치		3172
산정 찌까랑		3000
산정 까북		1650
요리가		4502
유가네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	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7207
조선일보	2930	
중앙일보	7590	
한국일보		1081
한인포스트	4586	
JAKARTA POST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	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2212
부미관광	7279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솔로몬투어	0813 1934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	18 33	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콥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8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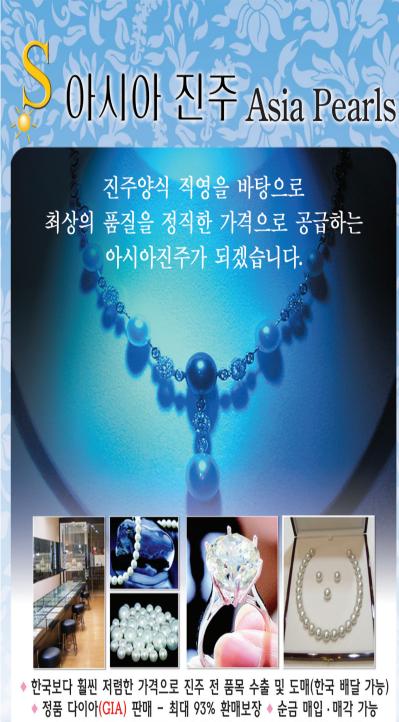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등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져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하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Ұ씨)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84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수출 - 무역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98 6112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ㅎ텍

	526	8080
	314	1407
	574	7777
	570	7440
	570	4444
	390	1234
	526	8833
	573	8011
0858	8248	3211
	2928	1111
	0858	314 574 570 570 390 526 573 0858 8248

● 화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등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당분간발리한인회로연락 주시기바랍니다

<발리 한인회 주소>

Jl. Kutat Lestari Gg. 6 No. 2A, Sanur, Kecamatan Denpasar Selatan Kota Denpasar Bali 80227 사무실 전화 번호 0361 472 1735 한인회 사무국장/영사협력원 이태우 0812 3793 9452



